

인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메시지

한국이슬람연구회문서 ④

인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메시지

감수와 옮긴이: Huseyin KIRDEMIR
이형주(Fethullah)

머리말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저마다 유일한 참종교라고 자처한다. 종교마다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서로 모순되어, 한 분이신 자애로운 세계의 하나님 아래 인류를 범세계적인 형제애로 결속시키기는커녕, 사람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고 종교에 대한 거센 반발만을 초래하였다. 국외자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주시해 본 사람은 누구나 당황하게 마련이며, 필시 종교라면 어디서나 다 염증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가정마다 가정이 있고, 학교마다 교장이 있으며, 도시마다 시장이 있고, 주마다 주지사가 있으며, 국가마다 국가의 원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산물은 어떤 생산자의 작품이며, 모든 아름다운 예술품은 어떤 예술가의 창작품임을 우리는 의심 없이 안다. 이 모든 것이 명백하기는 하지만, 인간의 지식에 대한 갈구와 세계의 범상치 않은 사물에 대한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지는 못한다. 수려하고 절묘한 경치를 보여주는 자연의 미, 끝없는 하늘의 지평선, 그리고 그 지평선 멀리의 아스라함, 쉬지 않고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지는 낮과 밤의 교대, 해와 달과 행성의 궤도, 생물계와 무생물계, 대대로 이어지는 인간의 부단한 과정과 진보, 이 모든 것을 보고 인간은 종종 경탄해 마지아니한다.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고, 무한히 향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 유지시켜 나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 자주 의문에 사로잡힌다.

거대한 우주를 설명해 낼 수 있는가? 존재의 신비가 납득할 수 있게 풀어져 있는가? 책임을 진 가정이 없이는 가정이 제 구실을 할 수 없고, 행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도시가 번창해 나갈 수 없으며 어떤 식으로든 수반

이 있지 않고서는 국가가 존재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안다. 또 무엇이든지 스스로 생겨날 수 없다는 것도 안다. 게다가 우리는 우주가 존재하고 가장 질서 정연하게 운행되고 있으며 헤아릴 수 없이 오랫동안 존속해 오고 있음을 본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인간과 인간의 존재를 단순한 우연에 맡겨 버릴 수 있는가?

인간이 단순히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면, 인간의 전 생애도 우연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그의 전 존재가 무의미해질 것이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여길 수 없으며,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한 자기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고 스스로 어떤 계획에 따라 행동의 모범을 설정하고자 한다. 개인이나 단체, 국가는 자기의 행동방침을 설정하고자 한다. 개인이나 단체, 국가는 자기의 행동방침을 계획하며, 용의 주도한 계획은 모든 어떤 원하는 결과를 낳는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인간이 어떤 종류로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훌륭한 계획의 가치는 오히려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거대한 우주의 조그만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세운 계획의 가치를 오히려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인간 자신의 존재와 우주의 존립 역시 어떤 계획된 방침에 의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물리적 존재의 배후에 계획하는 의지가 있으며 사물을 존재하게 하고 질서 있게 운용시키는 유일무이한 정신이 세계에 있음을 뜻한다. 우리의 세계가 보여 주는 경이로움과 생명의 신비는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계에는 만물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한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는 가장 매력적인 예술 작품을 창조해 내고, 만들어 내되, 그 존재에 어떤 특수한 목적을 부여하는 위대한 예술가가 있음에 틀림없다. 이 힘은 모든 힘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이며 이 예술

가는 모든 예술가 중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가다. 진실한 신앙인들과 사리에 밝은 사람들은 그분을 알라 혹은 하나님이라 부른다.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은 그분이 창조자이며 세계 제일의 건축가이며, 생명의 창시자이며 만물의 존재를 유지시키는 부양자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창조하거나 만들 수 없기에, 그분은 인간이 아니다. 그분은 어떤 동물이나 혹성이 아니며 우상이나 신검(身檢)같은 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스스로 생겨날 수도 다른 것들을 창조해 낼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 분은 기계도 아니다. 태양도 달도 아니며 그렇다고 별도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거대한 체계에 의해 통제되며 그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유지시켜 주는 분이기에 이 모든 것들과 구별된다. 만든 자는 만들어진 것과는 다르며 그보다 위대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또한 그 어느 것도 스스로 생겨날 수 없으며 경이로 가득찬 이 세계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

세계를 창조하고 유지시키는 분, 인간을 창조하고 부양하시는 분, 자연 속에서 작용하는 효율적인 힘, 이 모두가 하나로서 동일한 바, 알라 혹은 하나님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이분이야말로 신비중의 신비이며, 만유 중에서 가장 지고한 분이다.

본서는 이슬람과 다른 종교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개념 및 하나님의 유일신임을 증명하는 책이다. 본서는 다음의 네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주요 종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주요 종교의 성서를 검토해서 하나님이 유일신임을 보여주려고 한다. 많은 종교의 추종자들이 그들의 성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개념을 모른다는 것은 대단히 혼란 일이다. 그러므로 차라리 어떠한 종교에 있거나 성서들을 참고함으로써 하나님의 개념을 분석해봄으로써 또한 이해하도록 하고자 한다.

제 2장 “단 하나의 메시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메시지를 인류에게 알려주셨다는 내용을 설명하려고 한다.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

1. 단 하나의 메시지란 무엇인가?
2.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3. 그것에 대해서 꾸란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4. 그것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무엇인가?

제 3장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에서는 기독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속성 즉 삼위일체와 예수의 신성에 관한 쟁점과 질문들에 관해 논하여 보려고 한다. 그리고 아래의 질문에 해답을 제시한다.

1. 기독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2.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 아니면 세 분(삼위일체)이신가?
3.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한가?
4. 예수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부인가?
5. 예수는 인간의 아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나?
6. 그렇다면 예수는 진정 누구인가?
7. 당신의 의견은?

마지막 제 4장에서는 이슬람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려고 한다.

이 책을 통해 많은 한국인 독자들이 이슬람의 유일한 메시지인 하나님외에 신이 없다는 것을 알아보실 것이라고 믿는다.

후세인 크르데미리

2003년 12월 2일

목차

머리말	7
제1장 주요 종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개념	15
머리말	16
세계의 주요 종교들의 분류	18
셈족 종교들	18
비 셈족 종교들	18
아리아족 종교들	18
비아리아족 종교들	19
모든 종교에 있어서의 하나님에 대한 가장 진정한 정의	19
힌두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개념	20
힌두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일반 개념	20
바그와드 기다(Bhagwad Geeta)	21
우파니샤드(Upanishads)	22
베다(Vedas)	23
시크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개념	28
시크와 시크교의 정의	28
다섯 개의 K들	28
물 만트라(Mul Mantra): 시크교의 기본 신조	29
카비르(Kabir)에 의해 영향을 받은 구루 나나크(Guru Nanak)	30
조로아스터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개념	32
다사티르에 의한 하나님의 속성	32
아베스타에 의한 하나님의 속성	33
유대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개념	34
기독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개념	36
법을 이행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	38
하나님께서서 예수를 파견하셨다	38
첫번째의 계명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것이다	39
이슬람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개념	40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간결한 정의	40

이클라쓰 장: 신학의 시금석	41
어떤 이름으로 무슬림은 하나님을 부르는가?	41
하나님은 인간이 되지 않으신다	42
또 다른 인간을 숭배하는 것은 소용없다	42
하나님께서서는 신답지 않은 행동들을 하지 않으신다	43
하나님은 신다운 행위를 하신다	44
창조주께서는 가르침의 책자를 준비하신다	45
하나님께서서는 선지자들을 선택하신다	46
어떤 사람들은 장님이자 귀머거리이다	46
하나님의 속성:	48
하나님께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들이 있나니	48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특이하시며 오직 그 분 만이 지니신다	49
하나님의 하나의 속성은 다른 속성들과 모순되지 않는다	50
모든 속성들은 한 분이신 똑 같은 하나님을 가리켜야만 한다	50
하나님의 유일성	50
모든 종교들은 궁극적으로 일신론을 믿는다	52
사람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성서를 바꾸다	52
유일성(Tawheed)	53
정의와 범주	53
시르크(Shirk)	57
a. 정의	57
b. 시르크는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실 가장 큰 죄이다	57
c. 시르크는 지옥의 불길에 이른다	58
d.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숭배하지 말며 복종하지 말아라	58
결론	59

제2장 단 하나의 메시지	61
미리 던지는 질문	62
핵심으로 곧장 들어가기	63
진정한 하나님, 창조주	64
성경(구약성서) 속에 나타난 한 분이신 진정한 하나님	71
성경(신약성서) 속에 나타난 한 분이신 진정한 하나님	72
꾸란 속의 한 분이신 진정한 하나님	74
결론	76
제3장 기독교에 있어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79
미리 던지는 질문	80
머리말	81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 아니면 세 분이신가?	
예수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부인가?	82
예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인가?	92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였나?	93
사람으로서의 예수	93
사도(예언자)로서의 예수	94
결론	96
부록	97
참고문헌	98
제4장 이슬람에 있어서 하나님의 99 가지 이름(속성)	99
이슬람 및 한국 이슬람에 대한 홈페이지 주소	126
영어로 된 이슬람에 대한 홈페이지 주소	126

제1장

주요 종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개념

지은이: Dr. Zakir Naik

옮긴이: Huseyin KIRDEMIR
이형주(Fethullah)

머리말

우 리 문명의 뚜렷한 특징 중의 하나는 무수히 많은 종교와 윤리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류는 항상 창조의 이유와 사물들의 구성에 있어서의 그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고자 노력하여왔다.

아놀드 토인비는 시대들을 통하여 인간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가 발견한 것들을 열 권으로 구성된 불후의 작품 속에 실었다. 그는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종교가 중심에 서 있다고 요약했다. 1954년 10월 24일의 ‘The Observer’지에 실린 기사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종교가 존재의 신비에 대한 열쇠를 지니고 있다는 믿음을 되살려 놓았다.”

옥스포드 사전에 의하면 종교란“특히 복종과 숭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적인 신이나 신들 속에서 힘을 관장하는 초인에 대한 믿음”이라는 의미이다.

모든 주요 종교의 공통적인 한 특징은 보편적인 신 또는 전지전능한 최고의 신성한 권위자에 대한 믿음이다. 모든 주요 종교의 추종자들은 그들이 숭배하는 신이 또한 다른 사람들의 신이기도 하다고 믿는다.

마르크스주의, 프로이트설과 다른 비종교적 믿음들은 조직화된 종교의 뿌리를 공격하고자 애썼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 믿음의 체계들로 발전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가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 보급되었을 때 그것은 종교에서 그러듯이 설교와 선전을 특징으로 하는 똑 같은 언질과 열정으로 설교되었다.

그러므로 종교란 인간 존재의 하나의 통합적인 부분이다.

꾸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성서의 백성들이여 우리들이나 너희들을 막론하고 하나의 말씀으로 오라 하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무엇도 하나님과 비유하지 아니하며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님과 비교하지 말라 이르되 만일 그들이 배반한다면 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는 무슬림임을 지켜보라 말하라.”

(3장 64절)

다양한 종교에 대한 연구는 나에게 너무나 보상이 되는 경험이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분의 존재를 어렵듯이 알고 있는 모든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인간의 심리적 체질은 정반대의 것을 믿도록 조건 지어지지 않았다면 창조주의 존재를 받아들일도록 구성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에는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다.

세계의 주요 종교들의 분류

세 계의 종교들은 넓게 셈족 종교들과 비셈족 종교들로 분류될 수 있다. 비셈족 종교들은 아리아족 종교들과 비아리아족 종교들로 나누어질 수 있다.

셈족 종교들

셈족 종교들은 셈족들로부터 유래한 종교들이다. 성경에 의하면 사도 노아에게 쉘(Shem)이라 불리우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쉘의 자손들이 셈족들이라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셈족 종교들은 유대인들, 아랍인들, 앗시리아인들, 페니키아인들 등으로부터 유래한 종교들이다. 주요 셈족 종교들은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이다. 이 종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파견하신 사도를 믿는 사도의 종교들이다.

비 셈족 종교들

비셈족 종교들은 아리아족 종교들과 비아리아족 종교들로 하위 구분된다:

아리아족 종교들

아리아족 종교들은 기원전 2,000년에서 1,500년까지 이란과 인도 북부에 퍼져있던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는 강력한 그룹인 아리아족들로부터 유래한 종교들이다.

아리아족 종교들은 베다족 종교들과 비베다족 종교들로 또 하위 구분된다. 베다족 종교에게는 힌두교 또는 브라만교라는 틀린 명칭이 주어져있다. 비베다족 종교들은 시크교, 불교, 자이나교 등이다. 거의 모든 아리아족 종교들은 비사도의 종교들이다.

조로아스터교는 아리아족의 비베다족 종교로 힌두교와는 관련이 없다. 그것은 사도의 종교라고 주장한다.

비아리아족 종교들

비아리아족 종교들은 다양한 기원을 가지고 있다. 유교와 도교는 중국이 기원이지만 신도는 일본이 그 기원이다. 이러한 많은 비아리아족 종교들은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들은 종교라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윤리 체계들로 불리 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모든 종교에 있어서의 하나님에 대한 가장 진정한 정의

한 종교에 의해 신봉되는 하나님의 개념은 그 종교의 추종자들의 관행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판단될 수 없다. 많은 종교의 추종자들이 그들의 성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개념을 모른다는 것은 대단히 혼한 일이다. 그러므로 차라리 어떠한 종교에 있어서나 성서들을 참고함으로써 하나님의 개념을 분석해 보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이제 우리 세계의 주요 종교들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개념을 그들의 성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분석해봄으로써 이해하도록 해보자.

힌두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개념

아리아족 종교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교는 힌두교이다. ‘힌두’란 페르시아어의 낱말로 인더스 계곡 너머에 있는 종교의 주민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보통의 말로서는 힌두교란 종교적인 믿음들의 분류를 가리키는 총괄적인 용어이며 그 대부분은 베다, 우파니샤드, 그리고 바그와드 기다(Bhagwad Geeta)¹⁾에 기초를 두고 있다.

힌두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일반 개념

힌두교는 흔히 다신교로 인식되고 있다. 진실로, 대부분의 힌두교인들은 다수의 신들에 대한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이것을 증명하려고 한다. 3신 체계를 믿는 힌두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힌두교인들은 3억 3천만의 신의 존재를 사실상 믿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성서에 능통하여 있는 배움이 많은 힌두교인들은 힌두교인은 오직 한 분의 신만을 믿고 또 숭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의 힌두교인과 무슬림 사이의 주요한 차이점은 힌두교인들이 흔히 믿고 있는 범신론이다. 범신론은 산 것이건 죽은 것이건 모든 것이 성스럽고 신성하다고 간주한다. 그러므로 힌두교인들은 나무들, 태양, 달, 동물들 그리고 심지어는 인간들도 신의 현신들이라고 간주한다. 보통의 힌두교인에게는 모든 것이 신인 것이다.

그와는 정반대로 이슬람은 인간에게 그 자신 및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성 그 자체가 아니라 신성한 창조의 예들이라고 간주하도록 훈계한

1) 바라문적 요소와 다른 요소를 결합한 교의가 전개되는 종교 철학서로 인도 2대 서사시의 하나인 마합하라타(Mahabharata)의 일부

다. 그러므로 무슬림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속한다고 믿는 것이다. 나무들, 태양, 달 그리고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속한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힌두교인과 무슬림의 믿음에 있어서의 주요한 차이는 아포스트로피 ‘s’가 God에 붙느냐 안 붙느냐의 차이이다. 즉, 힌두교인들은 모든 것이 신(God)이라고 믿는 반면, 무슬림은 모든 것이 신의 것(God’s)이라고 믿는다.

꾸란은, “최초의 공통적인 조건은 우리는 알라(Allah)²께만 경배하느니라 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제 우리 힌두교와 이슬람의 성서들을 분석함으로써 공통점을 발견하고자 노력해보자.

바그와드 기다(Bhagwad Geeta)

모든 힌두교의 성서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바그와드 기다’이다. 바그와드 기다의 다음의 절을 보아라:

“물질적인 욕구로 말미암아 지성을 도난 당한 자들은 반신반인인 것들에게 굴복하고 그것들의 본성에 따라 숭배의 특별한 규칙들과 규제들을 따르니라.”

(7: 20)

바그와드 기다는 물질적인 사람들 그리하여 진정한 신 이외에 반신반인인 것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언급하고 있다.

2) “알라”는 이슬람에서 말하는 유일신으로 하나님이라는 의미이다. 이 책에서는 “알라”와 “하나님”을 같이 혼용하여 부르고 있다.

우파니샤드(Upanishads):

우파니샤드 또한 힌두교의 신성한 성서들로 간주되고 있다. 우파니샤드의 다음의 절들을 보아라:

i.

“Ekam evaditiam”

“그 분은 두 번째인 것이 없으신 오직 한 분이시다.”

(Chandogya Upanishad, 6:2:1)

ii.

“Na casya kasuj janita na cadhipah”

“그 분께는 부모도 주님도 없느니라.”

(Svetasavatara Upanishad, 6:9)

iii.

“Na tasya pratima asti”

“그 분과 견줄 것이 없느니라.”

(Svetasavatara Upanishad, 4: 19)

“Nainam urdhvam na tiryancam na madhye na pari-
grabhat na tasy pratime asti yasya nama mahad yasaḥ.”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그 분께 견줄 것이 없느니라.”

(The Principal Upanishad by S. Radhakrishnan, 736–737쪽)

위의 절들을 꾸란의 다음의 절들과 비교해 보아라.

“그 분과 대등한 것 세상에 없노라.”

(112: 4)

“그 분에 비유할 것 아무 것도 없도다.”

(42: 11)

iv.

“Na samdrse tisthati rupam asya, na caksusa pasyati kas canaiam, Hrda hrdistham manasa ya enam, evam vidur amrtas te bhavanti.”

“그 분의 형체는 보이지 않는다. 누구도 눈으로 그 분을 볼 수 없다. 마음과 정신을 통해 그 분이 마음 속에 머물고 계심을 아는 자들은 불멸의 상태에 이르노라.”

(Svetasavatara Upanishad, 4: 20)

꾸란은 이러한 모습을 다음의 절에서 언급한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시각은 없으나 그 분에게는 모든 시각이 있으시니 그 분은 자비와 아심으로 총만하심이라.”

(6: 103)

베다(Vedas):

베다는 모든 힌두교의 성서들 중에서 가장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주요 베다에는 넷이 있는데, 그것들은 야주르베다(Yajur Veda), 아타르베다(Atharva Veda), 리그베다(Rig Veda) 그리고 삼베다(Sam Veda)이다.

1. 야주르베다(Yajur Veda)

i. 야주르베다의 다음의 절들을 보아라:

“Na tasya pratima asti”

“그 분의 영상은 전혀 없다.”

(Yajur Veda, 32: 3)

또 나아가 말하기를

“그 분은 태어나지 않으시며 우리의 숭배를 받으실만 하다.”

“그 영광이 진실로 위대한 그 분의 영상은 없다. 그 분은 태양처럼 빛나는 모든 물체들을 주관하신다. 그 분께서 저를 해롭게 하시지 마소서 하는 것이 나의 기도이다. 그 분은 태어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숭배를 받으실만한 분이시다.”

(Devi Chand의 Yajur Veda, 377쪽)

ii. “

그 분은 몸이 없으시고 순수하시다.”

(Yajur Veda, 40: 8)

iii.

“Andhatama pravishanti ye asambhuti mupaste”

“공기, 물, 불 등처럼 자연의 것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암흑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삼부티(Sambhuti) 즉 테이블, 의자, 우상 등처럼 창조된 것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더 깊은 암흑 속에 빠진다.”

(Yajur Veda, 40: 9)

iv.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방황하며 헤매이게 하는 죄를 없애주소서.”

(Yajur Veda, 40: 16)

2. 아타르베다(Atharva Veda)

“Dev maha osi”

“하나님은 진실로 위대하시다.”

(Atharva Veda, 20:58:3)

이와 비슷한 절이 꾸란에 언급되기를:

“그 분은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다.”

(13: 9)

3. 리그베다(Rig Veda)

- i. 베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리그베다이다. 그것은 또한 힌두교인들에 의해 가장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리그베다는

“성인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많은 이름으로 부른다”

(Rig Veda 1:164:46)

고 말한다.

- ii. 리그베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33개나 되는 다른 속성들을 부여하고 있다. 리그베다에 언급된 다양한 속성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의 하나는 ‘브라흐마(Brahma)’ 인데 이는 ‘창조주’라는 뜻이다. 이것을 아랍어로 번역하면 ‘카릭(Khaliq)’가 된다. 무슬림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카릭’ 또는 ‘창조주’ 또는 ‘브라흐마’라고 언급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없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브라흐마’가 네 개의 머리를 가진 전지전능하신 신이라

는 견해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하지 않는다. 무슬림들은 그것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을 닮은 용어들로 묘사하는 것은 또한 야주르베다의 다음의 절에 위배된다:

“Na tasya pratima asti”
(그 분의 영상은 전혀 없다)

(Yajur Veda 32: 3)

리그베다에 언급된 또 다른 아름다운 속성은 ‘위시누(Vishnu)’인데 이는 ‘구세주(sustainer)’라는 뜻이다. 이를 아랍어로 번역하면 ‘랍(Rabb)’가 된다. 무슬림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랍’ 또는, ‘구세주’ 또는 ‘위시누’라고 언급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없다. 그러나 ‘위시누’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네 개의 팔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무슬림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영상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또한 앞서 언급된 야주르베다의 40장 19절에 위배되기도 한다.

iii.

“Ma chidanyadvi shansata”
“오 친구들이여, 신성하신 오직 한 분이신 그 분 외의 어느 것도 숭배하지 말지어다.”

(Rig Veda, 8:1:1)

iv.

“현명한 요가 수행자들은 그들의 정신을 집중하며 또한 어디에나 존재하시고 위대하시며 전지하신 최고의 실체자에 대해서도 그들의 생각을 집중한다.”

(Rig Veda, 5:81)

“Ekam Brahm, dvitiya naste neh na naste kinchan”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계시며 두 번째 하나님은 절대로 결코 있을 수 없다.”

(Hindu Vedanta의 Brahma Sutra)

그러므로 힌두교의 성서에 대한 오직 냉정한 연구만이 힌두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시크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개념

시크교는 비شم족, 아리아족, 비베다족 종교이다. 비록 시크교는 세계의 주요 종교는 아니지만 15세기 말에 구루 나나크(Guru Nanak)가 창시한 힌두교의 한 분파이다. 시크교는 파키스탄 지역과 5개의 강의 땅이라는 의미의 펀잡(Punjab)이라고 불리우는 인도의 북서부에서 유래되었다. 구루 나나크는 세트리예(Kshatriya)의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이슬람과 무슬림들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았다.

시크와 시크교의 정의

‘시크’란 말은 ‘Sisya’로부터 나왔는데 ‘문하생’ 또는 ‘추종자’라는 뜻이다. 시크교는 시크교의 교도사인 10명의 구루(종교 지도자)가 있는 종교인데, 최초의 구루는 구루 나나크이고 열번째의 마지막 구루는 고빈드 싱(Gobind Singh)이다. 시크교의 성서는 시리 구루 그란트(Sri Guru Granth)인데 아디 그란트 사힌(Adi Granth Sahib)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다섯 개의 K들

모든 시크교도는 다섯개의 K들을 지녀야만 하는데 이는 시크교도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한다.

- ① Kesh(게에시): 자르지 않은 머리카락
- ② Kangha(강가): 빗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사용됨)

- ③ Kada(가다): 금속이나 강철 팔찌 (힘과 자제를 위하여)
- ④ Kirpan(기르판): 자기 방어를 위한 단검
- ⑤ Kaccha(가자): 민첩함을 위한 특별한 무릎 길이의 속옷

물 만트라(Mul Mantra): 시크교의 기본 신조

시크교의 하나님의 개념은 “물 만트라(Mul Mantra)”에 인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크교의 기본 신조로 구루 그란트 사합(Guru Granth Sahib)의 시작 부분에 나타난다.

그 첫 절은 “오로지 한 분이신 하나님 만이 존재하며 그 분은 진정한 창조주라 불리우시며 두려움과 증오가 없으시고, 불멸이시며, 낡아지지도 않는 분이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며,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이다.

시크교는 엄격한 일신론을 신봉한다. 시크교는 오직 한 분이신 최고의 하나님을 믿는데, 그 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인 ‘에크 옴카라(ek omkara)’라 불리운다.

명백한 형태로는 그 분은 ‘옴카라(Omkara)’라 불리우는데 다음과 같은 여러 속성을 지니고 계시다.

Kartar(가르다르): 창조주

Sahib(사힘): 주님

Akal(아갈): 영원하신 분

Sattanama(삿다나마): 성스러운 이름

Parvardigar(파르와르디가르): 신봉자

Rahim(라힘): 자비로우신 분

Karim(카림): 은혜로우신 분

그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와해 구루(Wahe Guru)’라 불리우기도 한다.

시크교는 엄격한 일신론을 신봉할 뿐만 아님, 아브타르베다(Avatar Veda) (성육신의 이론)를 믿지 않는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타르’라고 알려져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신다. 시크교는 우상 숭배를 강하게 반대한다.

카비르(Kabir)에 의해 영향을 받은 구루 나나크(Guru Nanak)

구루 나나크는 산트 카비르(Sant Kabir)의 말에 너무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시리 구루 나나크 사힘의 몇 장에 산트 카비르의 2행 연구들이 실려 있을 정도이다.

그 중 하나는

“Dukh mein Sumirana sabh karein Sukh mein karein na koya Jo sukh mein sumirana karein To dukh kaye hoye”
(곤경에 처해서는 누구나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평화스러울 때와 행복한 때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 평화스러울 때와 행복한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곤경에 처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꾸란의 다음의 절과 비교해 보아라:

“인간은 재앙이 그에게 이른 후에야 주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더라도 그 분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니라. 그러나 인간은 그가 구원하여 기도 했던 것들을 망각하고 다시 우상을 세워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부터 방황하게 함이라.”

(39: 8)

조로아스터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개념

조 로아스터교는 고대의 아리아족 종교로 2,500년 전 보다 더 이전에 페르시아에서 유래하였다. 조로아스터교는 전 세계에 걸쳐 삼십만 명이 미처 못 되는 신봉자들을 지닌 가장 오래된 종교 중의 하나이다. 이란 사람인 조로아스터 선지자가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이다. 조로아스터교의 성서는 다사티르(Dasatir)와 아베스타(Avesta)이다.

조로아스터교에서 하나님은 ‘아후라 마즈다(Ahura Mazda)’로 알려져 있다. ‘아후라(Ahura)’란 ‘주님’이라는 뜻이고 ‘마즈다(Mazda)’는 ‘현명한 자’라는 뜻이므로, ‘아후라 마즈다’는 ‘현명한 주님’ 또는 ‘현명한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아후라 마즈다’는 일신론의 엄격한 한 형태이다.

다사티르에 의한 하나님의 속성

다사티르에 의하면, 아후라 마즈다는 다음의 속성들을 갖는다.

- ① 그 분은 한 분이시다.
- ② 그 무엇도 그 분을 닮을 수 없다.
- ③ 그 분은 시작도 끝도 없으시다.
- ④ 그 분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내도 아들도 없다.
- ⑤ 몸이나 어떤 형체를 갖지 않으신다.
- ⑥ 눈으로 그 분을 볼 수 없고, 어떤 생각의 힘으로도 그 분을 품을

수 없다.

- ⑦ 그 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위에 계시다.
- ⑧ 그 분은 당신 자신보다 당신에게 더 가까우시다.

아베스타에 의한 하나님의 속성

아베스타에 의하면, 가타스(Gathas)와 야스나(Yasna)는 아후라 마즈다에게 다음과 같은 특징을 부여한다.

- ① 창조주 (Yasna, 31:7&11)
- ② 가장 위대하신 자 (Yasna, 33:11), (Yasna, 45:6)
- ③ 자비로우신 분 (Yasna, 33:11), (Yasna, 48:3)
- ④ 관대하신 분 (Yasna, 43: 4, 5, 7, 9, 11, 13, 15)

유대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개념



대교는 주요한 셈족 종교들 중의 하나이다. 유대교의 추종자들은 유대인들 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들은 모세 사도의 사도직의 임무를

믿는다.

- ① 신명기의 다음의 절은 모세의 경고를 싣고 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신명기, 6:4)

- ②

“나, 내가 곧 주님이시다. 나 아닌 다른 구세주는 없다.”

(이사야, 43: 11)

- ③

“내가 주님이시다. 누가 또 있느냐? 나 밖에 다른 신은 없다.”

(이사야, 45:5)

- ④

“내가 신이다. 나 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자 또 어디 있느냐?”

(이사야, 46:9)

- ⑤ 유대교는 다음의 절들 속에서 우상 숭배를 경멸한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그 앞에 절하여 섬기지 못한다. 너희의 주님인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출애굽기, 20: 3-5)

⑥

“너희는 내 앞에서 감히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습을 본떠 새긴 우상을 모시지 못한다. 그 앞에 절하며 섬기지 못한다. 너희의 주님인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신명기 5: 7-9)

기독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개념

기독교는 셈족의 종교로 전 세계에 걸쳐 거의 이십억의 신봉자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독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따온 것이다. 예수는 또한 이슬람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다. 이슬람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비기독교 신앙이다.

기독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개념을 논하기에 앞서 이슬람에서의 예수의 위치를 먼저 검토해보자:

- ① 이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을 신앙의 한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비기독교 신앙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무슬림이 아니다.
- ② 무슬림은 예수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사도들 중의 한 분이셨다고 믿는다.
- ③ 무슬림은 그가 남성의 개입 없이 기적으로 태어났다고 믿는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고 있다.
- ④ 무슬림은 예수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죽은 자들을 살렸다고 믿는다.
- ⑤ 무슬림은 예수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눈이 먼 자들과 나병 환자들을 고쳤다고 믿는다.

혹자는 무슬림들과 기독교인들이 모두 예수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정확하게 그들이 갈라서는 길이 어디냐고 물을 수 있다. 이슬람과 기독교의 주요한 차이점은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신성을 주장하는 데에 있다. 기독교의 성서들을 연구해보면 예수가 신성을 주장한 적이 결코 없음이 드러난다. 사실상 성경

의 어디에서도 명백하게 예수가, “나는 하나님이다” 또는 “나를 숭배하라”고 말한 언급은 단 하나도 없다. 사실상 성경에는 예수가 오히려 정 반대의 내용을 설교한 언급들이 실려 있을 뿐이다. 성경의 다음의 언급들을 보아라:

“나의 아버지는 나보다 더 위대하시다”

(요한 14:28)

“나의 아버지는 그 어떤 것 보다 더 위대하다”

(요한 10: 29)

“...나는 성령의 힘으로 마귀들을 쫓아낸다”

(마태오 12: 28)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낸다”

(누가 11: 20)

“나는 무슨 일이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른 보내신 분의 뜻이기 때문에 내 심판은 올바르다.”

(요한 5:30)

법을 이행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스스로 신성을 주장한 적이 결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의 성격을 분명히 밝히셨다. 예수는 이전의 유대의 법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파견되셨다. 이것은 마태오 복음의 다음의 언급들 속에 분명히 나타난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분명히 말해 두는데,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율법은 일 점 일 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스스로 어기거나, 어기도록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계명을 비키고, 남에게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 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마태오 5:17-20)

하나님께서 예수를 파견하셨다:

성경은 다음의 절들을 통해 예수의 사도직을 언급한다:

“...내가 너희에게 들려 주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요한 14:24)

“영원한 생명은 곧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pbuh)이다”

(요한 17:3)

예수는 자신의 신성을 한 번도 암시한 적이 없었다. 성경에 언급된 다음의 사건을 고려해 보아라: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선하신 주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왜 너는 나를 선이라 부르는가? 참으로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뿐이다. 내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 하고 대답하셨다.

(마태 5:17-20)

위의 언급들은 예수의 신성을 주장하는 기독교의 독단과 예수의 희생을

통한 구원을 반박하고 있다. 예수는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계명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첫번째의 계명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것이다:

성경은 삼위일체를 지지하지 않는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에게 모든 것 중에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이나고 물었을 때 예수는 그저 모세가 이미 말했던 것을 반복할 따름이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마가 12: 20)

이슬람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개념

이슬람은 셈족 종교로 전 세계에 걸쳐 12억 이상의 신봉자를 가지고 있다. 이슬람이라는 말은“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이라는 뜻이다. 무슬림들은 꾸란을 무함마드 사도(그 분에게 평화와 깃들기를)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이슬람은 하나님의 유일성과 내세에 대한 책임의 메시지를 지닌 채 여러 시대에 걸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파견하셨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슬람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노아,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요한, 예수 등의 초기의 사도들과 다른 사도들에 대한 믿음을 신앙의 조건으로 삼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간결한 정의

이슬람에 있어서의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간결한 정의는 꾸란 112장의 4절 속에 내려져 있다:

1. 말하라, 그 분은 하나님이시며, 오직 한 분 뿐이다.
2. 영원하며 절대자이시다.
3. 낳지도 않고, 낳아지지도 않는 분이다.
4. 그 분을 닮은 아무 것도 없도다.

(꾸란 112 :1-4)

이클라쓰 장: 신학의 시금석

꾸란의 제 112장인 이클라쓰 장은 신학(Theology)의 시금석이다. ‘Theo’는 희랍어도 ‘하나님’을 뜻하고 ‘logy’는 ‘연구’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Theology’는 ‘하나님에 대한 연구’라는 뜻이며 무슬림들에게는 여기에 실린 4절의 정의는 하나님에 대한 연구의 시금석 역할을 하고 있다. 신성을 지니고 있는 지의 여부는 반드시 이 ‘엄밀한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이 장에 실린 하나님의 속성은 특이한 것이기에, 거짓 신들과 신성을 지닌 척하는 모든 존재들은 이 절들을 사용하여 쉽게 배제될 수 있다.

어떤 이름으로 무슬림은 하나님을 부르는가?

무슬림들은 영어의 낱말인 ‘God’ 대신 ‘알라(Allah)’라고 부르기를 더 좋아한다. 영어의 낱말인 ‘God’는 갖고 놀 수 있는 반면, 아랍어의 낱말인 ‘알라’는 순수하며 독특하다.

‘God’에다가 ‘s’를 덧붙이면 ‘God’의 복수인 ‘Gods’가 된다. ‘알라’는 유일하신 한 분이기에 ‘알라’의 복수는 없다. ‘남성 알라’라거나 ‘여성 알라’라는 것은 전혀 없다. 알라는 성을 가지지 않는다. ‘God’의 앞에다 접두사 ‘tin’을 붙이면 그것은 ‘tin-God’ 즉 거짓 하나님이 된다. 알라는 독특한 낱말로 마음 속에 그려볼 수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놀 수도 없다. 그러므로 무슬림들은 ‘알라’라고 말하기를 더 좋아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끔 비무슬림들과 말할 때에는 ‘알라’ 대신 어쩔 수 없이 부적절한 낱말인 ‘God’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지 않으신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왜 인간의 모습을 취할 수 없냐고 주장한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인간이 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 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질과 인간의 특질은 많은 점에서 절대 양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의 글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생각의 부조리함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불멸이요, 인간은 필멸이다. 우리는 신인(神人) 즉 불멸의 인간을 가질 수 없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시나 인간은 시작이 있다. 하나님은 끝이 없으시나 인간은 끝이 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먹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나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

“그 분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나 그 분은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꾸란 6:14)

하나님은 휴식이나 수면이 필요 없으시나 인간은 휴식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그 분은 살아계시나 영원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다. 졸음도 잠도 그 분을 엄습하지 못하도다. 천지의 모든 것이 그 분의 것이다.”

(꾸란 2: 255)

또 다른 인간을 숭배하는 것은 소용없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는 또한 또 다른

인간을 숭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에 동의해야만 한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취하게 된다면, 그 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며 인간이 모든 특질을 지니게 된다. 예를 들어 만일 대단히 박식한 한 교수가 사고를 만나 돌이킬 수 없는 기억상실증에 걸린다면, 그의 학생들은 더 이상 그 교수에게 수업을 들을 수 없게 된다.

나아가, 만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취하게 된다면, 그 인간은 후에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습을 취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로 혐오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이 꾸란에서 신(神)의 의인화의 모든 형태를 거부하여 말하고 있는 이유이다. 꾸란은 다음의 절에서 말한다:

“그 분을 닮은 아무 것도 없도다.”

(꾸란 42:11)

하나님께서서는 신답지 않은 행동들을 하지 않으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그 어떤 악도 배제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 자비, 그리고 진리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신 답지 않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며, 부당하며, 실수를 범하며, 망각하며, 인간의 모든 과오를 범하는 것을 상상해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부정을 범할 수 있으나, 부당하다는 것은 신답지 않은 행동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부정을 범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조금도 불공평하지 않으시다.”

(꾸란 4: 40)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부당해 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당함을 범하는 순간 그 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망각하지도 않으시고 실수를 범하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망각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망각은 신답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실수를 범하는 것은 신답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이다.

“...나의 주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며, 망각도 하지 않으신다.”

(꾸란 20: 52)

하나님은 신다운 행위를 하신다

그 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힘이 있으시다. 하나님에 대한 이슬람의 개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힘이 있으시다는 것이다. 꾸란은 여러 곳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힘이 있으시다.”

(꾸란 2: 106)

(꾸란 2: 109)

(꾸란 2: 284)

(꾸란 3: 29)

(꾸란 16: 77)

(꾸란 35: 1)

또 꾸란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서는 의도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꾸란 85: 16)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신다운 행위만을 의도하시며 신답지 않은 행위는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한다.

많은 종교들은 직접적으로건 간접적으로건 신(神)의 의인화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취하는 것을 믿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순수하며 성스럽기에 그 분은 인간의 고통, 결점, 그리고 감정을 모르신다는 것이다. 인간들을 위한 규칙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다. 이 기만적인 논리는 시대를 통하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속여왔던 것이다. 우리 이 주장을 분석하여 과연 그것이 논리에 맞는지를 살펴보자.

창조주께서는 가르침의 책자를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성과 지성을 부여하셨다. 우리는 특별한 목적의 용품들을 발명하고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녹음기가 무수히 만들어졌다. 녹음기에 좋은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제작자 자신이 녹음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안된 적이 결코 없었다. 우리는 단지 제작자에게 그의 물품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있으니 그가 가르침의 소책자를 출판하리라고 생각할 뿐이다. 간단히 말해서 가르침의 소책자가 그 기계를 위해 해야할 것들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당신이 인간을 하나의 기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복잡한 창조물이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알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을 취할 필요가 없으시다. 그 분께서는 오직 인류에게 가르침의 책자를 제시하시지만

하면 되는 것이다. 꾸란이 인류를 위한 가르침의 책자인 것이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물(인간)에게 심판의 날에 책임을 추궁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삶에서 해야 할 것들과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알려주신다는 것이 논리에 맞는 일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선지자들을 선택하신다

하나님께서서는 가르침의 책자를 쓰기 위하여 몸소 인간의 모습을 취하실 필요가 없다. 수 시대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신성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고 불리운다.

어떤 사람들은 장님이자 귀머거리이다

신(神)의 의인화의 논리의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교의 추종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믿도록 가르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지성과 우리에게 이 지성을 주신 창조주에 대한 모욕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에게 받은 청각과 시각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장님이자 귀머거리인 사람들이다. 꾸란은 말한다 :

“귀가 먹고, 병어리이며, 장님인 자들은 올바른 길로 돌아오지 못하니라.”

(꾸란 2:18)

성경의 마태복음에도 이와 비슷한 메시지가 있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알아 듣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마태 13:13)

힌두교의 리기베다에도 이와 비슷한 메시지가 있다.

“말들을 보면서도 진실로 그것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말들을 들으면서도 진실로 그것들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Rig Veda 10:71:4)

이 모든 성서들은 독자에게 비록 사물들이 너무나 분명히 만들어져 있지만
사람들이 진리로부터 벗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들이 있나니:

꾸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리 가로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구원하라. 너희가 무슨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던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아름다우니라.”

(꾸란 17:110)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들에 관한 비슷한 언급은 꾸란의 7장 180절, 20장 8절, 그리고 59장 23절과 24절에 언급되고 있다. 꾸란에서는 전지저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99가지의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알-라흐만 (Ar-Rahman),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알-라힘(Ar-Raheem), 그리고 가장 현명하신 분이라는 알-하킴(Al-Hakeem) 등이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특이하시며 오직 그 분 만이 지니신다

하 나님은 특이한 속성들을 지니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각각의 속성은 하나님을 확인하기에 충분하다. 이 점을 상세하게 분명히 밝히도록 하겠다. 유명한 사람인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을 예로 들어 보자.

만일 누군가가 닐 암스트롱이 미국인이라고 말한다면 닐 암스트롱이 지니고 있는 미국인의 속성은 정확하지만 그를 알아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닐 암스트롱은 우주비행사이지만 우주비행사라는 속성은 닐 암스트롱에게만 독특한 것이 아니다. 독특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독특한 속성을 찾아야만 한다. 예를 들면, 닐 암스트롱은 달에 발을 디딘 최초의 인간이었다. 그러므로 만일 누군가가 달에 발을 최초로 디딘 사람이 누구였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오직 하나 즉 닐 암스트롱이다. 마찬가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독특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우주를 창조하신 분과 같이 말이다. 만일 내가 건물의 창조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가능하며 진실이었지만 그것은 독특하지는 않다. 수 천명의 사람들이 건물을 만들 수 있기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각각의 속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알-라힘(Ar-Raheem)” (가장 자비로우신 분)

“알-라흐만(Ar-Rhaman)”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

“알-하킴(Al-Hakeem)” (가장 현명하신 분)

그러므로 누군가가 장장 자비로우신 분 즉 “알-라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오로지 하나의 대답만이 있을 수 있으니,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하나의 속성은 다른 속성들과 모순되지 않는다

만일 누군가가 닐 암스트롱은 키가 4피트 밖에 안 되는 미국인 우주비행사라고 말한다면 미국인 우주비행사라는 그 속성은 정확하지만 키가 4피트 밖에 안 되는 그와 관련된 속성은 거짓이다. 마찬가지로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은 하나의 머리와, 두 개의 손과, 두개의 발을 지닌 우주의 창조자라고 말한다면, 우주의 창조자라는 속성은 정확하지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와 관련된 속성은 잘못된 것이고 거짓이다.

모든 속성들은 한 분이신 똑 같은 하나님을 가리켜야만 한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에 모든 속성들은 한 분이신 똑 같은 하나님을 가리켜야만 한다. 창조주는 하나의 하나님이고 구세주는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속성들을 겸해서 가지고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유일성

일부의 다신론자들은 한 분 이상의 하나님의 존재를 주장하는데 이는 비논리적이다. 그들에게 지적해두도록 하겠다. 만일 한 분 이상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서로 논쟁을 벌릴 것이고 각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들의 뜻에

거스르게 자신의 뜻을 이행할 것이다. 이것은 다신론적이고 범신론적인 종교들의 신화에서 볼 수 있다. 만일 한 분의 하나님이 패배를 당해 다른 하나님들을 물리칠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은 진실로 한 분이신 참된 하나님이 아니다. 다신론적 종교들에서 또 인기 있는 것은 많은 하나님들이 존재하시어 각각 다른 책임을 떠맡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는 무능하며 다른 하나님들의 의무와 책임을 모른다는 것을 뜻한다. 무능하며 모르는 하나님이란 있을 수 없다. 만일 한 분 이상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주에서 틀림없이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파괴가 생길 것이다. 그러나 우주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꾸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천지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었다면 하늘과 대지는 둘 다 붕괴하였으리라. 옥좌의 주님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묘사하는 것 위에 높이 계신 하나님만을 찬미하라.”

(꾸란 21:22)

“하나님은 자식을 주지 아니 하셨으며 그 분을 대적할 어떠한 신도 없노라. 만일 다른 많은 신들이 있었다면 각 신들은 자기가 창조한 것을 빼앗아 갔을 것이며 다른 신을 지배했으리라. 하나님이여 그들이 묘사하는 것을 초월하여 홀로 영광받으소서.”

(꾸란 23: 91)

그러므로 한 분이신 참된 절대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논리적 개념인 것이다.

불교나 유교처럼 불가지론적인 종교인 소수의 종교들이 있다. 그 종교들은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그 종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다. 자이나교와 같은 다른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은 무신론적 종교들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모든 종교들은 궁극적으로 일신론을 믿는다

궁 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모든 주요한 종교들은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한 분이신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다. 모든 종교의 성서들은 사실상 일신론 즉 오직 한 분이신 참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 말한다.

사람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성서를 바꾸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대부분의 종교의 성서들은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고 바뀌어져 버렸다. 많은 종교의 신조가 그리하여 일신론에서 범신론 또는 다신론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꾸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 손으로 그 성서를 써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값싸게 사소서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며 그것을 쓴 그들의 손에도 재앙이 올 것이며 그로써 금전을 모으는 자들에게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꾸란 2:99)

유일성(Tawheed)

정의와 범주

이 슬람은 단순히 일신론 즉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에 대한 믿음인 ‘따우히드(Tawheed)’를 믿는다. ‘따우히드’란 문자 그대로 “통일” 즉 “절대적 하나”를 뜻하는 말이다. ‘따우히드’는 세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질 수 있다.

① 주님의 유일성을 유지하기(Tawheed ar-Ruboobeeyah)

그러므로 ‘Tawheed ar-Ruboobeeyah’는 주님의 유일성을 유지하기를 뜻한다. 이 범주는 아무 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존재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기본적인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무로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②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들의 유일성을 유지하기 (Tawheed al-Asmaa was-sifaat)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들의 유일성을 유지하기라는 뜻이다. 이 범주는 다섯 개의 모습으로 나누어진다.

- i. 하나님은 그 분과 그의 사도에 의해 묘사된 대로 언급되어야만 한다.
- ii. 하나님은 그 분이 스스로 언급하신 것처럼 언급되어야만 한다.

하나님은 그 분께 새로운 어떤 이름들이나 속성들을 부여하지 않은 채 언급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화를 내신다고 말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화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알-가다브(al-Ghaadib)’라는 이름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도님께서건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iii. 하나님은 그 분께 그의 창조의 속성들을 부여하지 않은 채 언급된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에 있어서 우리는 그 분께서 창조하신 것들의 속성들을 그 분께 부여하는 일을 엄격하게 삼가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들이 그들의 잘못을 깨달을 때에 그러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 분의 나쁜 생각들을 후회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것은 유일성의 원칙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며 어떠한 잘못이나 실수를 범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속성들을 언급할 때 지켜야 할 주요한 열쇠가 꾸란에 제시되어 있다.

“그 분을 닮은 것 아무 것도 없도다. 그 분은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시는 분이시다.”

(꾸란, 42: 11)

iv.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도 주어서는 안된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주어 언급하는 것은 또한 유일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예를 들면, 사람을 시작이나 끝도 없는 사람이라고 묘사하는 것 말이다.

v. 하나님의 이름을 그 분의 창조물들에게 부여해서는 안 된다.

③ 숭배의 유일성을 유지하기(Tawheed al-Ibaadah)

i. 숭배의 정의와 의미:

사람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숭배가 오직 의식적인 기도만을 뜻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이슬람에서의 숭배의 개념은 완전한 복종과 예속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삼가는 것이 숭배며 이 숭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지는 것이다.

ii. 세 가지의 범주는 모두 동시에 지켜져야 한다.

숭배의 유일성을 유지하기를 활용함이 없이 처음 두 가지의 범주만을 믿는 것은 소용없다.

“일러가로되 하늘과 대지에서 누가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느냐? 또한 듣게 하고 보게 하심은 누구이뇨? 죽은 자를 살게 한 자는 누구뇨? 누가 산 자를 죽게 하느냐? 누가 일들을 주관하느냐? 하나님이요 라고 하니라 . 그 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왜 그 분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꾸란 10:31)

이와 비슷한 예가 꾸란에 반복된다:

“그들을 창조한 분이 누구이뇨 묻는다면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말하리라 그러면서도 그들은 진리로부터 외면하려 하느냐?”

(꾸란 43: 87)

메카의 이교도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자이며 구세주이자 주님이여 주인인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이외의 또 다른 신들을 숭배했기에 무슬림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신자인 그리고 우상숭배자인이라고 분류하였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 그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더뇨!”

(꾸란 12: 106)

그러므로 숭배의 유일성을 유지하기가 유일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만이 숭배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하나님만이 숭배에 대한 혜택을 인간
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시르크(Shirk)

a. 정의

위에서 언급한 유일성의 범주들 중에서 빠진 것이나 부족한 것은 ‘시르크(Shirk)’로 언급된다. 시르크란 문자 그대로 함께 나누는 파트너를 뜻한다. 이슬람의 용어에서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파트너를 뜻하며 우상숭배와 동등한 것이다.

b. 시르크는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실 가장 큰 죄이다:

꾸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로 하나님은 그 분에 비유하려는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그 외에는 그 분의 뜻에 따라 용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에 비유하려는 자는 죄를 조성하는 것이다.”

(4: 48)

“실로 하나님은 그 분에 비유하는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나 그 외에는 원하는 자마다 용서를 하시나 하나님에 비유하는 자는 멀리서 방황하니라.”

(4:116)

c. 시르크는 지옥의 불길에 이른다:

“하나님이 마리아 아들을 메시아라 말하니 그들은 분명 불신자들이라. 그러나 메시아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나의 주님이요 너희의 주님인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 하나님께서 천국을 금하시고 불지옥을 그들의 거주지로 하게 하니 죄인들에게는 구원자가 없노라.”

(꾸란 5:72)

d.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숭배하지 말며 복종하지 말아라:

“성서의 백성들이여 우리들이나 너희들을 막론하고 하나의 말씀으로 오라하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무엇도 하나님과 비유하지 아니하며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님과 비교하지 말라. 이르되 만일 그들이 배반한다면 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는 무슬림임을 지켜보라 말하라.”

(꾸란 3: 64)

결론

꾸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그들을 험담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함이라.”

(꾸란 6:108)

“지상에 있는 모든 수목이 연필이 되고 일곱 개의 바다를 더하여 물로 가득 찬 바다가 잉크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모두를 기록할 수는 없나니 실로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꾸란 31: 27)

“사람들이여! 하나의 비유를 드사 그것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구원하는 자들은 그들이 온 힘을 다 모은다 해도 결코 파리 한 마리 조차도 창조하지 못하며 그 파리가 그들로부터 무엇인가를 가져간다 해도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그것을 구하지 못하니 숭배자의 우상은 허약할 뿐이라.”

(꾸란 22: 73)

주님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있으소서!

제 2 장

단 하나의 메시지!

지은이: Dr. Naji I. Al-Arfaj

옮긴이: Huseyin KIRDEMIR
이형주(Fethullah)

미리 던지는 질문 :

1. 단 하나의 메시지란 무엇인가?
2.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3. 그것에 대해서 꾸란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4. 그것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무엇인가?

핵심으로 곧장 들어가기:

아담의 창조 이후, 인류의 역사를 통해 *오로지 하나뿐인 메시지가* 인류에게 줄곧 반복하여 전달되어 왔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그것을 상기시키고 또한 제대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무함마드와 같은 많은 사도들을 파견하셨다.

*진정한 하나님은 오직 한분이시다.
그 분께만 경배할 것이며 또한
그 분의 계율을 지킬지어다.*

진정한 하나님, 창조주

—아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노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브라함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모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무함마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 나님께서서는 다른 많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요한 사도들을 파견하시어 몇 가지 임무와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셨으니 그 일부는 다음과 같다.

1. 하나님께 인도를 받을 것이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라.
2.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라.
3. 사람들에게 훌륭한 표본을 보여라.
4.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분의 계율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5. 사도들의 추종자들에게 종교 및 도덕적 문제와 같은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라.
6.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다른 신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인도하라.
7. 사람들에게 최후의 심판일에 대해 말해줄 것이며 무엇이 천국이나 지옥의 불로 인도할지를 말해주어라.

그 분은 바로 선지자들, 인간들, 동물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똑같은 하나님이다.

즉, 그 분은 바로 전 우주와 자연, 자연 속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오직 한 분이신 진정한 하나님이다**. 그 분은 생명과 죽음 그리고 사후의 삶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창조자이신 이 진정한 하나님의 유일성은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무슬림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성서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고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성경과 꾸란 속에서 하나님의 개념을 진지하고 객관적으로 연구해보는 연구자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하나님에게만 고유한 몇 가지 특질을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진정한 하나님을 다른 신이라고 주장되는 존재들과 구별짓는 몇 가지 특질은 다음과 같다.

- ⊙ 이 한 분이신 진정한 하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자이시다.
- ⊙ 이 한 분이신 진정한 하나님은 *셋이나 그 이상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시다.* 그 분께는 견줄 자가 없다.
- ⊙ 이 한 분이신 진정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누구도 이승에서 그 분을 볼 수 없다. 그 분은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 ⊙ 이 한 분이신 진정한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로 죽거나 변화하는 일이 없다.
- ⊙ 이 한 분이신 진정한 하나님은 어머니, 아내, 또는 아들과 같은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음식이나 마실 것 또는 도움과 같은 그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다른 존재들은 그 분을 필요로 한다.
- ⊙ 이 한 분이신 진정한 하나님은 그 속성이 유일무이하여 누구도 그 무엇도 그 분께 견줄 수 없다.

우리는 모든 신이라고 주장되는 존재들을 조사해보아 거부함에 있어서 그 분께만 고유한 다른 것들은 물론 바로 이러한 기준들과 특질들을 활용할 수 있다.

자 이제 위에서 언급된 하나의 메시지를 논하며 하나님의 유일성을 확인해 주는 몇몇 성경과 꾸란의 절들을 인용해보도록 하겠다.

그러나 그 이전에 다음의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싶다.

일부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다면 핵심은 무엇일까?” 와 같이 궁금해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독교에 관한 상당히 많은 읽을거리와 학습자료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과의 대화에 입각하여 볼 때 나는 기독교인들은 이 한 분이신 하나님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즉,

1. 성부(하나님 아버지)
2. 성자(하나님의 아들)
3. 성령

그러므로 상식과 단순한 논리에 입각하여 본다면 진지하고 정직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이성적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즉

- ⊙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고 말하면서 세 분의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 ⊙ 하나님은 셋 중의 하나이신가 아니면 하나 중의 셋이신가?

그뿐 아니라 기독교적 논리에 의하면 이 세 분의 신들은 각기 다른 신분, 이미지, 역할 그리고 기능을 가지고 계신 것이다. 즉

1. 성부 = 창조주
2. 성자 = 구원자
3. 성령 = 상담자(조언자)

그런데 만일 성자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진정 하나님이거나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일부분이라면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도 또 그 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성경 말씀에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 여러분은 그 분의 목소리를 결코 들은 적이 없고 또 그 분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요한복음 5장 37절)

- ⊙ 이제껏 누구도 그 분을 본 적이 없으며 누구도 그 분을 볼 수 없다.

(디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편지 6장 16절)

- ⊙ 누구도 나를 보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없다.

(출애굽기 33장 20절)

이와 같은 그리고 성경의 다른 자료들에 입각하여 나는 진지하고 정직하게 다음의 질문을 던지는 바이다. 즉,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는 논리와 누구도 그 분을 본 적이 없고 그 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는 성경의 증언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예수의 시절에 유대인들,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은 일부의 사람들이 믿듯이 성자로서의 예수 즉 하나님을 보고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던가?

→ 하나님에 대한 진실과 관련하여 그 어떤 비밀이나 숨겨진 목적이 있는가?

성경에서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강조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다.

“내가 신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나는 비밀리에 말한 적이 없고 나의 목적을 숨긴 적이 없다. 내가 신이다. 내가 진리를 말하노니 나는 옳은 일을 알린다.”

(이사야 45장 19절)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인가?
부디 그 절을 다시 읽고
생각해 보시기를!

자 이제 성경과 꾸란 속의 한 분이신 진정한 하나님에 관한 진실을 추구하는 여행길을 떠나보자.

이 여행이 끝날 때에 그리고 이 작은 책자와 특히 아래에 인용된 절들을 비판적으로, 진지하게, 정직하고 또 신중하게 읽어보신 후에 나는 당신의 반응이나 견해를 알고 싶다.

가능한 한 객관적이 되기 위해 다음의 절들을 아무 논평 없이 인용하는 바이니, 그 어떤 선입견 없이 신중하고 비판적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란다.

성경(구약성서) 속에 나타난 한 분이신 진정한 하나님

- ①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신명기 6:4)
- ②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만드시고 또 지탱해주시지 않았느냐?
(말라기 2장 15절)
- ③ 너희는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곧 주님임을 알 것이다. 나에 앞서서 만들어진 신은 없었고 나 후에도 있을 수 없다. 내가 곧 주님이며 나 아닌 다른 구세주는 없다.
(이사야 43장 10, 11절)
- ④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나 외에는 신이 없으며 누가 나와 같을 수 있겠느냐?
(이사야 44장 6절)
- ⑤ 정의의 신이며 구세주인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에게 의존하여 구원을 받아라. 나에게 모두 무릎을 꿇을 것이리라.
(이사야 45장 21-23절)

위의 절들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일부의 절에 불과하다.

당신은 다른 유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성경(신약성서) 속에 나타난 한 분이신 진정한 하나님

- ⊙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왜 너는 나에게 와서 선한 일에 대하여 묻느냐? 참으로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하고 대답하였다.

(마태오 19장 16~17절)

- ⊙ 영원한 생명은 곧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 17장 3절)

- ⊙ 당신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리고 오직 그 분만을 섬겨라.

(마태오 4장 10절)

- ⊙ 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나님인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마르코 12장 29절)

- ⊙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도 오직 한 분이신데 그 분이 바로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편지 2장 5절)

당신은 하나님께서

셋이 아니라 오직 한 분뿐이심을 확인해주는

다른 절들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까?

꾸란 속의 한 분이신 진정한 하나님

- ⊙ **그 분은 알라이시다. 오직 한 분이신 알라께서는 영원하시며 절대자 이시다. 그 분은 낳지도 않고 낳아지지도 않으셨으니 그 분과 견줄 자가 없다.** (꾸란 112장 1절-4절)
- ⊙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를 경배하라.** (21장 25절)
- ⊙ **하나님께서 셋 중의 하나라 말하는 이들은 분명 불신자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그런 불경스런 말을 단념치 않는다면 진실로 가혹할만한 벌이 그들에게 내려질 것이다.** (5장 73절)
- ⊙ **알라(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있는가? 아니다. 대부분의 이들은 알지 못하다.** (27장 61절)
- ⊙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있는가? 알라께서는 그들이 그 분과 견주는 모든 것 위에 계시다.** (27장 63절)
- ⊙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있는가? 만일 당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그 증거를 가지고 오라.** (27장 64절)

단 하나의 메시지!

진실로 **하나님의 유일성**에 관한 이 메시지야말로
꾸란의 본질적 주제이다.

결론

위의 절들은 성경과 꾸란 속에 나타나는 수백 개의 유사한 증거들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메시지를 확인해 주는 바, 그것은 다름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는 것이다. **“온 세계의 사람들아, 이제 내게 의지하여 구원을 받아라.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사야 45장 22절)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신 진정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임을 또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나 이전에 만들어진 신은 없고, 나 이후에 만들어질 신 또한 없다. 나는 주이며 나 외에는 다른 구세주가 없다.”** (이사야 43장 10~11절)

그러므로, 성경 속의 이러한 말에 의하면 신이라고 주장되는 모든 존재들 또는 예수, 성령, 브라마(범천, 힌두교 최고의 신), 비슈누(힌두교 3대 신의 하나), 크리슈나(비슈누의 제8화신), 부처에게 신의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도 아니고 또한 한 분이신 진정한 하나님의 화신도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그러한 그릇된 믿음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른 신들을 숭배했을 때에 **주님의 분노의 불길이 그들에게 가해졌던 것이다.**(시편 25편 3절) 마찬가지로 이유로 모세 또한 금송아지를 파괴하였다.

그와는 반대로 초기 기독교의 유니테리언파인 에세네패 교도들은 온갖 고문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오로가 새롭게 만들어낸 삼위일체설을 받아들여 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의 일신교적 가르침만을 따랐다.

요약하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고 무함마드와 같은 하나님

의 모든 사도들은 창조주이신 같은 하나님에 의해 보내져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도록 된 것이다.

즉, 진정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그분의 계율을 지켜라.

그리고 위의 사도들은 같은 하나의 메시지를 가르쳤으니 그들의 종교는 같은 것이어야만 하는 것이다. 자, 그 사도들의 종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 사도들의 메시지의 본질인 바, ‘순종’이라는 이 말은 아랍어로 ‘이슬람’ 을 의미하는 것이다.

꾸란은 진정 ‘이슬람’ 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사도들의 종교임을 확 인시켜 준다. 이러한 꾸란의 사실은 성경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위에 언급된 메시지를 기꺼이 또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더 나아가 무함마드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모든 사도들을 믿어야만 하며 그들의 인도와 가르침을 따라야만 한다. 이것이야말로 행복과 영생의 길로 이르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진리를 진지하게 추구하는 자이고 구원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너무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이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죽음이 오기 전에! 죽음은 곧 닥칠 수도 있다! 누가 알 수 있으랴?

제 3 장

기독교에 있어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지은아: Dr. Naji I. Al-Arfaj

옮긴이: Huseyin KIRDEMIR
이형주(Fethullah)

미리 던지는 질문 :

1. 기독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2.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 아니면 세 분(삼위일체)이신가?
3.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한가?
4. 예수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부인가?
5. 예수는 인간의 아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가?
6. 그렇다면 예수는 진정 누구인가?
7. 당신의 의견은?

다음의 글을 신중하게 또 비판적으로 읽어 보십시오.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말입니다.

머리말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진리를 찾으라,
그러면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추구하며 삶을 공부하는 자로서 또 수년간에 걸친 관찰과 연구 그리고 비교적 연구를 해온 나에게는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과 판단의 기초를 예수가 권장한 바위처럼 단단한 토대에 보다는 오히려 연약하고 모래처럼 변하기 쉬운 토대에 흔히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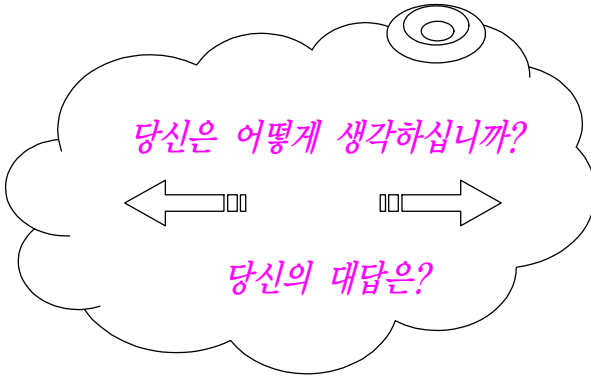
당면한 주제와 관련하여 나는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에 관해 통상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사이에 몇 가지 주요한 차이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소책자를 통해서 필자는 사랑과 관심의 마음으로 말씀드리거니와 본인이 끊임없는 연구와 분석 또 공부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배운 것을 여러분도 함께 나누어 가지시기를 바란다.

이 책의 목적은 그 누구의 감정도 해치려함이 아니라 내가 발견한 진리를 정직하고 진지하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 이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속성 즉 삼위일체와 예수의 신성에 관한 쟁점과 질문들에 관해 논하여 보자.

하나님은 한 분인가 아니면 세 분인가? 예수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부인가?



성경으로부터 그 해답을 구하여 보기로 하자.

-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선하신 주인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왜 너는 나를 선이라 부르는가? 참으로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네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 하고 대답하셨다.

(마테오 19장 16, 17절 King James판)

위 절들에 대해 몇 가지 직관적인 질문을 던져보겠다.

- ⊙ **“왜 너는 나를 선이라 부르는가?”**
—왜 예수는 그 자신의 선에 대해 의심했을까?
- ⊙ **“참으로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하고 예수는 강조하였다.
—왜 예수는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오직 선이라고 말했을까?
- ⊙ 만일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왜 그 자신을 선으로부터 제외했을까?
- ⊙ **“내가 생명의 나라로 들어 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 하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왜 예수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도록 질문자에게 명령하지 않았을까?
- ⊙ 예수의 증언에 입각하여 본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겠는가?

자, 이제 우리 위의 마태오 복음 19장 16절과 17절의 똑같은 절을 King James판과 신성서 국제 번역판(the New International Version of the Holy Bible)과 비교해서 다시 읽어보자.

- ⊙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선하신 주인님(good master),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왜 너는 나를 선이라 부르는가?(Why do you call me good?) 참으로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내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 하고 대답하셨다.**

(King James 번역판)

-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선생님(Teacher),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왜 너는 나에게 선에 대해 물어보는가?(Why do you ask me about what is good?)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거든 제명에 복종하라.” 하고 대답 하셨다. (신성서 국제번역판)

두 번역판의 표현을 쉽게 비교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King James판에 의하면 예수께서

“왜 너는 나를 선이라 부르는가?”

라고 물으셨다.

그러나 신성서 국제번역판에서는

“왜 너는 나에게 선에 대해 물어보는가?”

로 되어 있다.

자, 위의 두 가지 표현은 의미가 같은 것인가? 두 표현 다 올바른 것일 수 있을까?

예수는 하나님인가? 라는 비판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만일 예수가 하나님이거나 또는 하나님의 일부분이라면, 예수의 논리적 대답은 질문자가 그를 주인님이라고 부른 것을 시인하는 대답이 될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건전한 추리와 분명한 논리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은 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예수가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일부분이라면 예수 또한 선이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까?

추정해 보면 젊은이가 “선하신 주인님”이라고 부른 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께서 답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몇 가지 대답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 ⊙ “물론 나는 선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 ⊙ “네가 옳다. 나는 선이다.”
- ⊙ “또는 적어도 예수가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현신이기에 자신이 분명 선임을 알고 있었다면 **“내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려거든 제명을 지켜라”** 라는 토를 달지 않고 대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젊은이의 “**선하신 주인님**”이라는 호칭에 예수는 의외의 대답을 했던 것이다. 즉, 예수는 “**왜 너는 나를 선이라 부르는가?**” 하고 물으면서 자신이 선임을 부인했던 것이다.

또 자신의 선을 부인하는 대신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이 선임을 시인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예수가 진정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현신이라면 말이다. 왜 예수는 자신의 **선한 신성을 드러내지 않고 참으로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라고 말했을까? 예수가 질문자에게 자신에 관한 진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인가?

- ⊙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한 분이신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 17장 3절)

이 절에서도 예수는 또 다시 **오직 한 분이신** 진정한 하나님과 구별되고 있다. 예수를 창조하고 보내신 분은 바로 이 오직 한 분이신 진정한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누가 명령하고 보낼 절대적 권위를 갖는 것인가?

오직 한 분이신 진정한 하나님인가, 예수인가? **명령을 내리고 보내시는 분과 명령을 받으며 보내어지는 분** 중 누가 더 위대한 것인가?

-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중재자도 한 분 뿐인데,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디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편지 2장 5절)

이 절은 두 신분에 대해 언급하는 바, 하나는 한 분이신 하나님과 또 하나는 한 분이신 중재자(예수)이다. 즉, 예수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절은 예수를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고 있다. 사실상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절은 전혀 없다.

예수는 하나님인가 또는 하나님의 일부분인가 라는 점에 대해 더 상세히 논해 보기 위해 우리 마태오 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절들을 신중하고 비판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읽어보도록 하자.

- 그 뒤에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 사십 주야를 단식하신 후 몹시 시장하셨다.
- 악마는 다시 아주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화려함을 보여 주었다.
- “당신이 내 앞에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 하고 악마가 예수님께 말했다.

이 절들을 읽고 연상되는 질문이 있습니까?

위 절을 읽고 난 후 나의 마음을 흔든 몇 가지 질문과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다.

1) 성경은 “**예수께서 성령에 의해 사막으로 인도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예수와 성령 중 누가 더 많은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만일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왜 스스로 자신을 인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에게 자신을 인도할 누군가가 필요하단 말인가?

2) 위 절의 증언에 입각하여 볼 때에 기독교인들에 의해 하나님이라고 간주 되는 예수를 악마가 유혹했다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간단하면서도 논리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겠으니 즉, 하나님이 유혹받을 수 있단 말인가?

똑같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유혹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 사실은 유혹에 관한 똑같은 이야기 속에서 예수가 말하는 바이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12사도 중의 한 사람인 야고보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하나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을 수 없는 분이며 또한 악을 행하도록 누구도 유혹하지 않으신다.** (야고보의 편지 1장 13절)

3) 성경은 “사십 주야를 단식하신 후 예수께서 시장하셨다.”고 말하는 바, 다음의 추론을 해보자.

- 하나님이 단식을 하시는가?
- 예수께서 누구에게 단식을 해 보이셨다는 말인가?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에 계인가 아니면 자신보다 더 위대한 누구에게인가?
- 하나님이 배고픔이나 갈증을 느끼는가?

4) ‘유혹을 받으신 예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악마가 예수를 움직여 통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악마가 그렇게 한 것은 사람인 예수에게인가 하나님인 예수에게인가? 만일 사람인 예수에게라면 핵심은 무엇인가? 만일 하나님인

예수에게라면 도대체 하나님이 시련받고 움직여질 수 있고 통제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악에 의해 유혹받을 수 없다...”** 는 야고보의 말을 상기해 보자.

예수와 악마의 대화가 끝났을 때에 그리고 **“나에게 앞드려 경배하라”** 고 악마가 예수에게 말한 후, 예수는 악마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리고 그 분만을 섬겨라.”** (마태오 4장 10절)

만일 예수가 하나님의 화신이라면 “아니다, 악마야. **너야말로** 너의 하나님인 **나에게** 앞드려 경배해야만 한다!”라고 쉽게 대답했을 것이라고 나는 추정해 본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에게만**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악마에게 호소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위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을 알게 되었다.

- 악마가 예수를 보았다.
- 악마가 예수에게 말했다.
- 악마가 예수의 목소리를 들었다.
- 악마가 예수를 잡았다.
- 악마가 예수를 안내했다.
- 악마가 예수와 말을 했다.

(‘예수께서 유혹을 받으시다’ 라는 마태오 복음의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전부를 부디 다시 읽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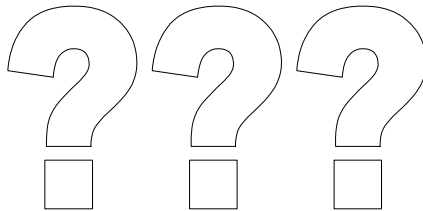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고 목소리도 들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

- ⊙ 이제껏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디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편지 6장 16절)
- ⊙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자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 또한 없다.
(요한 5장 37절)
- ⊙ 영원한 왕이시여 오직 한 분뿐이시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불멸의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토록 영예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디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편지 1장 17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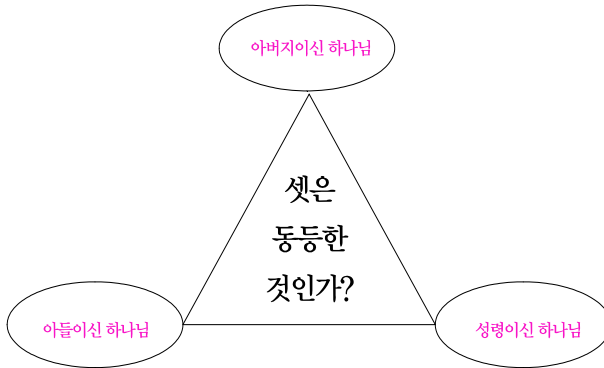
덧붙여,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나는 다음의 질문을 하여 본다. 즉, 예수가 지상에서 사는 동안 그의 가족과 사람들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이 예수를 보고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던가?

그러므로 위 절에 나타난 예수의 묘사에 의하면 예수는 하나님일 수가 없다. 이것은 참으로 합리적이며 논리적이지 아니한가?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다른 비판적인
질문들에 대해 논해 보자.



- ⊙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신 하나님은 동등한 것인가?
- ⊙ 아들이신 하나님(예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동등한가?
- ⊙ 아들이신 하나님(예수)은 성령이신 하나님과 동등한가?



예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자.

- ⊙ *나의 아버지는 나보다 더 위대하시다.*
(요한 14장 28절)
- ⊙ *나에게 나의 양들을 주신 나의 아버지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더 위대하시다.*
(요한 10장 29절)
- ⊙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스스로의 가르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요한 7장 16절)

- 나는 무슨 일이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기 때문에 내 심판은 올바르다.
(요한 5장 30절)
-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마르코 13장 32절)
- 사람인 아들을 거스르는 말을 하는 누구나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도 다 이제껏 앞으로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마태오 12장 32절)

예수 자신이 말한 진술들뿐만 아니라 위에 분명히 나타난 진술들을 읽어본 후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오직 한 분이신 진정한 하나님이 자신보다 더 위대하며 성령보다 더 위대하다는, 또 자신이 가르치는 것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니더라는, 또 자기와 성령은 최후의 심판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예수의 정직하고 솔직한 증언에 입각하여 볼 때에 진정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바를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며 예수를 하나님으로 만들거나 하나님과 동격으로 만들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질문에 대해 논해보기로 하겠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인가?

성경으로부터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자.

- ⊙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3장 38절)
- ⊙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출애굽기 4장 22절)
- ⊙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나는 오늘 너를 낳았노라.”* (시편 2장 7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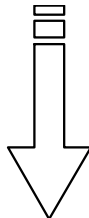
그러므로 성경과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다윗 또한 하나님이 낳으신 또 다른 아들인 것이다.

- ⊙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울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오 5장 9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성경 속에서 찾아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호칭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바, 그러므로 예수만이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정의롭고 경건하며 선택 받은 자 즉 하나님을 향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를 **비유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반드시 물어보아야 할 절대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풀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였나?

하나님은 셋이 아니라 하나이며, 예수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일부가 아니며,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으며, 예수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성경으로부터의 증거에 대해서 논해본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였나?”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사람으로서의 예수

예수가 성경 속에서 사람 또는 사람의 아들로 언급되어 있는 곳은 많다. 아래에 몇 절을 소개한다.

- ⊙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나사렛 예수는 여러분 중에서 여러 가지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이 말은 예수의 아주 가까운 친구이자 추종자였던 베드로가 한 말이다.

- ⊙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다.* (마태오 11장 19절)
- ⊙ *이 사람은 진정한 예언자이다.* (요한 7장 40절)
- ⊙ *그런데 너희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전하여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요한 8장 40절, King James판. 일부 성경책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기도 하다. 당신의 성경을 검토해 보라.)

자신의 생애 중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예수는 자신이 ‘**한 명의 사람**’임을 증언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에게 진리를 말해준 하나님의 화신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왜 예수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예수가 사실을 숨기고 있었을까?

사도(예언자)로서의 예수

⊙ **이 분은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입니다.**

(마태오 21장 11절)

⊙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4장 24절)

⊙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종이 주인보다 더 나올 수 없고 패전된 사람이 패전한 사람보다 더 나올 수는 없다.**

(요한 13장 16절)

⊙ **이 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예언자이다.**(요한 6장 14절)

⊙ **예언자이었던 예수...**

(누가 24장 19절)

위 절들은 예수가 오직 한 분이신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이며 사도이었음을 보여주는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절들 중의 일부일 뿐이다. 성경의 어디에서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해 둔다.

예수에 관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마지막 지식!

“예수께서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당신을 죽음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와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간구를 들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5:7)

위에 인용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결론과 그것이 함축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결론

위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는 불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어떤 다른 신도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 나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다...”* (이사야 43장 10, 11절)

“내가 너희의 주님인 하나님이다. 나는 나와 견주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는다.”

(출애굽기 20장 5절)

이와 유사한 성경의 절은 그것들과 반대되는 소수의 절들과 비교하여볼 때에 성경 속에 수백 번씩이나 나타나고 있다.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주제는 예수는 예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만물을 창조하신 오직 한 분이신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이다 라는 것이다.

이 진리를 탐구하는 여정의 끝 무렵에서 나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아야 할 몇 가지 질문을 다음과 같이 던지고 싶다.

- 이제 모든 것을 제 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때가 아닌가?
- 이제 예수를 오직 한 분이신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한 분의 예언자이며 한 명의 사람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올바른 위치로 돌려놓아야 할 때가 아닌가?
- 너무 늦기 전에 즉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오직 한 분이신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분께만 경배해야 할 때가 아닌가?

부록

삼위일체, 예수의 신성, 원죄,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 예수의 피를 통한 구원 등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바로 기원 후 5세기에 태어난 바오로이었다고 날로 증가하는 성경학자들은 믿고 있다.

더 나아가 훗날 바오로의 믿음과 가르침에 의해 채색되고 영향을 받게 된 4대 복음서 이전에 바오로가 그의 편지들을 썼다는 것이 위의 학자들 사이에 널리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다. 즉, 바오로의 가르침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는 예수의 본래의 메시지 사이의 차이점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 1) The Holy Bible, King James Version.
- 2) Good News Bible, Today's English Version.
- 3)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 4) Holy Bible, Revised Standard Version.
- 5) The Bible Library, 29 works on one CD-Rom disc, It includes 9 bibles and 20 biblical references, 1995 Ellis Enterprises, Inc. Oklahoma, USA.
- 6) The Multi-Bible CD-Rom, Innotech Multimedia, Inc. Ontario, Canada
- 7) Several websites from the internet.
- 8) Information and feedback from my public lectures audience and my weekly Tv program's viewers.

제 4 장

**이슬람에 있어서
하나님의 99 가지
이름(속성)**

하나님의 99가지 이름은 꾸란과 무함마드 사도(그 분에게 평화가 깃드시기를)의 언행집인 하디스에 언급된 하나님의 속성들이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99개의 이름이 하나 하나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1. 알라 (Allah): '알라'는 그 분의(하나님의) 고유명이다. 즉 신의 이상적인 이름이다.

"모든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 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지탱 유지하시는 분이다. 그 분은 어떤 누구와도 닮지 않으시며, 어떤 것도 그 분과 견줄 수 없다."

2. 알-라흐만 (The Beneficent): 자비

"그 분은 순종하든 그렇지아니하든, 선하든 악하든 간에 모든 창조물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 분은 모두에게 삶을 통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3. 알-라힘 (The Merciful): 자애

"그 분은 그 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신앙인과 피조물에게 보상을 하여 주신다. "

4. 알-말리크 (The Supreme Ruler of The Sovereign Lord): 지고하신 주권자

"그 분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지배자이시다. 그 분께는 그 어떤 물건도 그 어떤 사람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그 분의 신성에 달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5. 알- 꾸두-쓰 (The Holy): 신성한 존재

"그 분은 완전 무결하시며 그 분의 특성, 이름, 그 모든 어휘, 행하는 것들 그 모두가 완전하고 순수할 수 밖에 없다. 그 분의 창조는 사람이 그에 관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위를 초월하여 존재한다."

6. 앓- 쌀람 (The Saviour or The Source of Peace): 구원하시는 분 또는 평화의 근원

"그 분은 신성한에서 완전무결하시며 그 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지혜로우며 동시에 장엄하다. 그 분은 믿는 자들을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주는 분이시다."

7. 알-무민 (The Guardian of Faith): 신앙을 보호하시는 분

"그 분은 우리의 마음안에 진리의 빛을 불러일으키시며 우리를 믿는 자로 만드신다. 그 분은 또한 그 분안에서 거처를 구하는 모든 이들의 보호자이시며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8. 알- 무하이민 (The Protector): 보호하시는 분

"그 분은 보호자이시며 동시에 인도자이시다. 그 분은 모든 피조물을 지켜 보고 계시며 그들이 가야할 길로 그들을 인도하신다. 세상의 그 어떠한 존재도 그 분의 뜻을 피할 수 없다."

9. 알- 아지-즈 (The Mighty, The Victorious) : 위대하신 분, 승리하시는 분

"그 분은 그 무엇에 대해서도 언제나 승리를 거두시는 승리자이시다. 그러나 죄를 범하거나 그 분께 반기를 드는 자들을 서둘러 파멸하시지 않으신다."

10. 알- 잡바-르 (The Compeller): 강제하실 수 있는 분

"그 분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부족한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그 어떠한 어려움없이 그 분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11. 알-무타카비르 (The Majestic, The Greatest): 위엄있는 분, 가장 위대하신 분

"그 분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며, 위대함이란 오직 그 분께만 속한 특성이다. 그 분은 오만한 자들을 멸하시어 가장 비천하게 만들 수도 있고, 가장 비천한 자들을 가장 축복받는 존재로 만들 수도 있다."

12. 알- 칼-리끄 (The Creator): 창조자

"그 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며, 창조된 모든 것의 상태를 유지시키기도, 바꾸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 분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창조를 행하는지를 알고 계시며, 창조물로부터 아무런 것도 필요치 않는다. 그 분은 창조물없이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13. 알- 바-리우 (The Inventor or Evolver): 창조하시는 분, 혹은 발전시키는 분

"그 분은 완벽한 조화 속에 그 창조를 두셨으며, 모든 피조물은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완전한 조화 속에 놓여있다. 그 분은 또한 인간에게 사상과 선택의 자유, 그리고 생각하는 힘을 주셨다."

14. 알-무싸우와르 (The Designer or The Fashioner): 계획하시는 분 혹은 만드시는 분

"그 분은 가장 독창적이고 완전한 형태를 각각의 피조물들에게 붙여넣는 완벽한 예술가이다. 그 분께서 '있으라'고 하시자 우주 만물이 있게 되었다."

15. 알-갸파르 (The Forgiver): 용서하시는 분

"그 분은 참회와 회개를 받아들이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그 분에 대한 개인의 참회와 회개는 그같은 행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도가 수반되어야 한다. "

16. 알-까흐하-르 (The Subduer): 지배하시는 분 혹은 억제하시는 분

"그 분은 모든 피조물을 지켜보고 감독하시는 영원한 지배자이시다. 어떠한 것도 그 분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17. 알-와하-브 (The Benefactor or The Bestower): 은혜를 베푸시는 분, 혹은 베푸시는 분

"그 분은 그 어떤 보답이나 이득을 바라지 않으며 무한히 베푸시는 분이다. 모든 곳에서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언제나 은혜를 베푸신다. 그 분은 가난한 자에게는 필요한 것들을, 병든 자에게는 건강을 주시며 그 분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다른 그 무엇도 이것을 막거나 방해할 수 없다."

18. 알-랏자-끄 (The Sustainer or The Provider): 도와주시는 분 혹은 부양하시는 분

"모든 피조물은 부양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정신적인 것일 수도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으며, 그 분은 이 모든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19. 알-팻타-흐 (The Opener): 열어보이시는 분

"그 분은 닫혀있는 것, 잠겨있는 것,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을 열어보이시는 분이다."

20. 알-알림 (The Knower or All-Knowing):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 분은 모든 것을 아신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그 분께서는 무제한의 지혜를 지니고 계신다."

21.22. 알-까-비드 & 알-바-씨뜨 (The Constrictor and The Expander): 압박을 가하시는 분 그리고 해방하시는 분

"그 분께서는 압박을 가하기도, 직접 풀어주기도 하신다. 그 분이 압박을 가하실 때 우리의 육체는 고통을 느낄 것이나 그 인내 속에서 균형을 유지한다면 마침내는 우리의 신념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하고 우리를 좀더 그 분께로 가까이 다가오게 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이다.

평화롭고 안이한 순간에는 그 모든 것에 대해 그 분께 감사 드려야 한다.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그 분께로부터 기인함을 믿고 그 상태를 유지하며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 분의 뜻을 기억해야 한다."

23.24. 알-카-피드 & 알-라-피으 (The Abaser and The Exalter): 낮추시는 분, 그리고 올리시는 분

"그 분은 모든 피조물을 낮추시거나 높이시는 분이다. 그 분은 올바른 이들을 높이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힌 자들을 낮추신다."

25.26. 알-무잇즈 & 알-무질루 (The Honourer and The Dishonourer): 명예를 주시는 분, 그리고 명예를 잃게 하시는 분

"그 분은 피조물에게 명예를 주시기도, 그 명예를 앗아가기도 하시는 분이다."

27. 알-싸미-으 (The All Hearing):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

"그 분은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 사람들의 마음을 스쳐지나가는 모든 것들,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을 듣고 아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그 분의 완전 무결하고도 고결함의 한 상징이며 그 어떠한 제약이나 조건도 없다. 그 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만족하시거나 대답하시고, 혹은 바로잡아 주신다."

28. 알-바싸-르 (The All Seeing): 모든 것을 보시는 분

"그 분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우리는 그 분을 볼 수 없으나 그 분은 우리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29. 알-하کم (Maker of Immutable Judgment) : 심판자

"그 분은 통치자이고 그 분의 판단은 그 분의 말이다. 그 분은 명령할 수 있는 단 한 분이시다. 그 분은 공정과 진실의 중재인이시다. 그 분은 재판한다. 그리고 그 분의 공정을 수행하신다."

30. 알- 아들 (The Just): 공평하고 올바르신 분

"그 분은 완전무결하고 공명정대하시다. 선과 악 모두 필요한 것으로, 그 분께서는 올바른 것과 그릇된 것 모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선을 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적인 판단이나 불평없이 그 분께 감사드려야 한다. 그 분께서 보이시는 것들 중 선이 아닌 듯 보이는 것도 종국에는 선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분의 공명정대한 길이기 때문이다."

31. 알-라띠-프 (The Fine, Subtle One): 예리하고 세밀하신 분

"그 분은 가장 예리하고, 세밀하며, 아름다운 분이시다. 그 분은 영혼과 마음, 지혜와 성스러운 빛이 지닌 아름다움의 비밀들 안에 감추어진 섬세한 미를 만드신 분이시다."

32. 알-카비-르 (The Aware):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그 분은 모든 것들 안에서 발생하는 숨겨진 것들까지도 감지하고 아시는 분이시다. 그 어떤 것도 그 분을 피해 일어날 수 없다. 그 분은 우리의 가장 내밀한 비밀이나 생각, 행위와 의도 모두를 알고 계신다."

33. 알-할림 (The Forbearer or The Forbearing One): 참고 늦추시는 분

"그 분은 죄에 대한 벌을 서두르지 않으신다. 그 분은 기다리신다. 그 분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직접 깨닫고 회개하여 바로잡을 기회를 주고자 하신다."

34. 알-아짐 (The Great One): 위대하신 분

"그 분은 절대적으로 완전하며 위대하신 분이다. 그 분은 어떠한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그 분의 위대함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다."

35. 알-가푸-르 (The Forgiving One): 용서하시는 분

"그 분은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잘못까지도 용서해주시고, 그것들이 전혀 저질러지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하게 돌려주시는 분이다. 만일 그 분이 우리의 잘못, 옳지 못한 생각과 언행들을 감추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36. 앳-샤쿠-르 (The Thankful, The Benefactor, The Appreciative): 은혜를 베푸시는 분, 감사를 받으실 분

"그 분은 언제나 최상의 것으로 보답을 해주시며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그 보답을 낳는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분의 모든 것, 그리고 그 분과 함께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그 분께로부터 왔음을 늘 기억한다."

37. 알-알리유 (The Highest One): 가장 고결하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

"그 분의 위대함과 고결함은 인간의 제한된 사고로는 결코 측정될 수 없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그 분과 같은 것이 없다."

38. 알- 까비-르 (The Most Great): 가장 위대하신 분

"그 분의 위대함은 시작 이전부터 끝 이후까지 미칠 것이다. 가장 작은 원자나 광대무변한 우주도 그 분앞에서는 어떠한 차이도 갖지 못한다. 우리는 이러한 그 분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사랑받기를 원하며 그 사랑을 잃고 분노를 사지 않기 위해 매사에 옳은 길을 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9. 알-하피-즈 (The Preserver): 보존하시는 분

"그 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알고 기억하시는 분이다. 그 분은 어느 것 하나 잊지 않고 모든 것을 보존하시며, 이러한 보존은 곧 그 분의 보호를 의미한다. 그 분은 축복받은 선지자들과 성서들을 보내시어 지혜와 사리판단력, 그리고 물질적 정신적 해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 신성한 법을 알게 해주셨다."

40. 알-무끼-뜨 (The Nourisher, The Maintainer):

육성하시는 분, 길러주시는 분

"그 분은 모든 피조물이 필요로 하는 것들 역시 창조하셨다. 이 모든 것들은

피조물의 생명이 다하지 않는 한 결코 고갈되는 법이 없으며, 피조물이 그 분께 요청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베풀어주신다."

41. 알-하씨-브 (The Accounter, The Reckoner):

계산하시는 분

"그 분은 그 분의 피조물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산하시는 분이다. 심판의 날에 우리는 우리가 받아 사용한 모든 것들을 계산하여 그 분께 드려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하나하나의 숨결조차도 모두 그 분께로 돌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42. 알-잘릴 (The Majestic, The Mighty, The Sublime One):

숭고하신 분, 가장 위대하신 주권자

"그 분은 위대하고 숭고한 주권자이시다. 그 분의 권능, 자비, 자애, 그 모든 것들이 더불어 고결하다. 그 분은 모든 위대함의 근원이다."

43. 알-카림 (The Generous): 너그러우신 분

"그 분은 너그러우심과 자애로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주신다. 그 분은 별하실 수 있을때조차 가능한 한 우리를 용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신다."

44. 알-라끼-브 (The Observer, The Watchful One):

관찰하시는 분, 지켜보시는 분

"그 분은 매순간마다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관찰하시는 분이다. 또한 우리를 매순간 지켜보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 꾀악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며 우리의 이기심을 이용하여 우리가 옳은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순간 악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파악하여야 한다."

45. 알-무지-브 (The Acceptor of Prayer, or The

Responsive): 예배를 받아들이시는 분, 응답을 주시는 분

"그 분은 모든 예배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 그 분은, 피조물들간 보다도 더 가까이 우리들 곁에 계시다."

46. 알-와-씨으 (The All-Embracing): 모든 것을

포괄하시는 분

"그 분의 광대함은 끝이 없으며 모든 것에 닿는다. 그 분의 지혜, 자애, 권능, 자비,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며 무한하다."

47. 알- 하킴 (The Wise): 지혜로운 분

"그 분은 완전무결한 지혜로움을 지니고 계시므로, 그 분의 명령을 따르는 자는 누구나 완전한 사람이 되는 길을 배우고 습득할 수 있다."

48. 알-와두-드 (The Loving): 사랑을 주시는 분

"그 분은 선한 종들을 사랑하시며,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아 마땅한 유일한 분이다. 모든 완전함과 완벽함이 그 분안에 있기 때문이다."

49. 알-마지-드 (The Most Glorious One): 가장 영광된 분

"그 어떠한 존재도 그 분을 당할 수 없으며 그 분같은 존재란 있을 수 없다. 그 분은 우리 자신의 영혼보다도 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며 그 분의 왕국은 완전 무결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그 분께로 돌아가야 한다."

50. 알-바-이쓰 (The Raiser from the Dead, The Resurrector):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키시는 분

"그 분은 모든 사람들은 무덤으로부터 부활시켜 그들이 생전에 행한 모든 생각과 언행을 펼쳐보이실 것이다. 죽거나 소멸되는 것은 육체뿐이며 영혼은 영원한 것이다."

51. 앳-샤히-드 (The Witness): 목격하고 증언하시는 분

"그 분은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일 모두를 목격하고 계시는 분이다."

52. 알-학끄 (The Truth): 진리

"그 분이 곧 진리이니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 분의 존재는 곧 모든 다른

존재들의 근원이다. 그 분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생겨나고 시작되고 변화하고 사라지며 다시 생겨난다. 그러나 그 분은 변화나 탄생, 소멸 그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진리일 뿐이다."

53. 알-와킬 (The Trustee): 관리하시는 분

"그 분은 근원적이고 가장 확고하게 모든 것을 다루시며 모든 일에 결말을 맺어주는 분이시다. 그 분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에게 이로운 것과 그 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베풀어주신다. 진정으로 그 분을 따르는 길은 주위의 모든 것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 후의 결과는 그 분으로부터 나온다."

54. 알-까위 (The Most Strong): 가장 강하신 분

"그 분은 결코 고갈되는 법이 없는 모든 힘과 권능을 지니고 계신다."

55. 알-마틴 (The Invincible): 확고하신 분

"그 분은 확고한 분이시다. 왜냐하면 그 분은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분은 불요불박하시며 가장 강력하시다. 그는 우주를 힘들이지 않으시고 지탱하신다. 모든 안전성과 힘은 그 분 명령에 의해 편성된다."

**56. 알-왈리 (The Protecting Friend): 따르는 자를
보호하시는 분**

"그 분은 그 분께 순종하는 종들을 도와주고, 모든 어려움을 없애주시며, 그들에게 평화와 성공, 그리고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 분을 따르는 자는 그 분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필요지 않다."

**57. 알-하미드 (The Most Praiseworthy): 가장 칭송과
찬미를 받으실 분**

"모든 존재는, 그들의 말과 행동 혹은 그 존재 자체로서 그 분을 찬미한다. 그 분은 모든 것들의 근원이시며 모든 능력과 고결함의 원천이다."

58. 알-무흐씨 (The Counter): 계산하시는 분

"그 분은 모든 지식을 소유하고 계신다. 그 분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 보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 분은 이 우주의 모든 피조물의 숫자를 알고 계시며 우리의 좋은 언행과 나쁜 언행의 중량을 모두 알고 계시다."

59. 알-무브디 (The Originator): 창시하시는 분

"그 분은 모든 것을, 모델이나 물질없이 창시하신 분이다. 그 분은 시간과 공간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다."

60. 알-무이-드 (The Restorer): 되돌리시는 분

"그 분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존하거나 그것들을 원래대로 되돌려놓으시는 분이다."

61. 알-무히이 (The Giver of Life): 생명을 주시는 분

"그 분은 존재할 수 없었던 것들을 존재케하신 분이다. 그 분은 모든 것들에 생명을 부여하실 수 있고 보존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62. 알-무미-트 (The Giver of Death): 생명을 거두어가시는 분

"그 분은 모든 피조물에 죽음의 순간을 정해두셨다. 육체는 볼 수는 있으나 일시적인 것이고 영혼은 감추어져 있으나 영원한 것이며, 육체가 없어도 존재하는 것이다. 살아있을 때에는 영혼을 다듬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으나 죽은 후에는 그럴 수 없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그 분에 의해 결정되어 있는 죽음의 순간을 늘 준비하여야 한다."

63. 알-하이 (The Ever-Living One):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

"그 분은 완전히, 그리고 언제까지나 살아계시는 불후의 존재이다. 모든 삶의 가치는 훗날 지식과 지혜를 얼마나 추구했느냐에 의해 판단되나 그 분은 이러한 일체의 것들로부터 초월하여 존재하는 분이다."

64. 알-카이웁 (The Ever Self-Existing One):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 분의 존재는 그 분에게만 관계가 있으며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와 운명은 그 분께 달려있다. 모든 것은 그 분으로인하여 존재하며 영혼은 인간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 영혼이 우리의 육신을 떠날 때 육신은 더 이상 숨을 쉬지도, 움직이지도, 보지도 듣지도 않을 것이다. 그때에 영혼은 완결된 존재로서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갖는다."

65. 알-와-지드 (The Finder): 발견하시는 분

"그 분께서는 원하는 때면 언제나,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발견하고 찾아 내실 수 있다. 그 분은 그 분의 종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 없이도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이며, 종들은 그 분의 존재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66. 알-마-지드 (The Glorious): 장엄하신 분

"그 분은 그 분께 가까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무한한 자애와 자비를 베푸시는 가장 장엄하고 영광된 분이다."

67. 알-와-히드 (The Unique): 유일하신 분

"그 분은 유일하시다. 그 분과 같은 것이나 동반자는 전혀 수반하지 않은채 홀로 존재하신다. 그 분의 모든 것들이 유일하며, 그 분만이 경배와 찬미, 순종과 복종..그 모든 것을 받게 되는 분이다."

68. 앓-싸마드 (The Satisfier of all needs):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주시는 분

"그 분은 언제나 존재하시며 우리가 필요로 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알고 계신다. 그 분은 이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방법으로 충족시켜주신다."

69. 알-까-디르 (The All-Powerful, The Able One):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 분은 그 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지니고 계신다."

70. 알-무끄따다르 (The All-Powerful): 전능하신 분

"그 분은 모든 힘과 그 힘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창조하셨으며 그 모든 것들을 지니고 계신다. 그 분이 피조물들에게 부여하시는 힘은 제한된 것이며 그것들 역시 그 분에 의해 제어된다."

71. 알-무깃딤 (The Expediter): 촉진시키시는 분

"그 분은 그 분이 원하는 자들을 움직이게 하신다. 피조물들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느냐 하는 것은 그 분께 얼마큼 가까이 있는 가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72. 알-무아키르 (The Delayer): 연기하시는 분

"그 분은 그 분이 원할 때에 모든 것들 늦추실 수 있다. 신앙인들이 어떠한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한번쯤 다시 돌아봐야 한다. 그들의 생각이나 의도 가운데 무언가가 올바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73. 알-아우왈루 (The First): 최초에 계시는 분

"그 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며, 모든 것들이 그 분으로부터 나온다. 그 분은 모든 것들의 근원이다."

74. 알-아-키르 (The Last): 마지막에 계시는 분

"그 분은 무한히 존재하시는 분이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모든 것이 사라질때에도 그 분은 홀로 존재하실 것이며 모든 존재는 그 분께로 돌아올 것이다."

75. 알-자-히르 (The Manifest One): 명백히 존재하시는 분

"모든 것이 그 분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분은 인간의 상상이나 감각, 지각 너머에 존재하고 계시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그 의도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그 분은 자비롭게 용서하여 주신다."

80. 앓-따와-브 (The Acceptor of Repentance): 회개를 받아들이시는 분

"그 분은 사랑으로서 모든 참회와 회개를 받으십니다. 신앙인들은 그 분을 사랑하고 동시에 두려워해야 하며, 그 분께 참회를 할 때에는 온 마음으로 하여야 한다. 그 분은 자비롭고 자애로우시어 진심으로 참회하는 모든이들을 받으십니다."

81. 알-문타킴 (The Avenger): 보상을 하시는 분

"그 분은 그 분의 피조물들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순종하지 않는 자를 벌하신다. 이러한 자아는 그 분의 적이다."

82. 알-아푸 (The Forgiver, The Pardoner): 용서하시는 분

"그 분은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여주신다. 죄의 용서는 삶의 방법을 바꾸게 하는 하나의 기회이며, 그 분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83. 알-라우프 (The Lenient): 인자하고 관대하신 분

"그 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보고 아심에도, 언제나 관대하고 인자하시다. 그 분은 전지전능하며 스스로 존재하신다."

84. 말-리크 알-물크 (The Eternal Sovereign): 영원한 통치자

"그 분은 홀로 이 장엄하고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다. 창조를 통해,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를 발견하고 그 분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85. 줄-잘랄리왈-이크람 (The Lord of Majesty and Bounty):
위엄과 은혜를 지닌 주권자**

"그 분은 완전무결하시며 모든 명예와 은총이 그 분으로부터 나온다. 그 어떠한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을 그 분으로부터 시작된다."

86. 알-무끄씨뜨 (The Equitable One): 공정한 분

"그 분은 공정과 공평함 속에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그 분은 언제나 적합하고 필요한 것만을 주시나, 그 분이 알고 계시는 것 모두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87. 알-자-미으 (The Gatherer): 모아두시는 분

"그 분은 언제나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모아두신다. 그 분은 창조한 우주안에 별들과 은하계, 행성들, 바다들..생명체들..그 모든 것들을 두셨다. 또한 그 분은 심판의 날에 모든 영혼을 일으켜 불러 모으실 것이다."

88. 알-가니 (The Self-Sufficient):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

"그 분은 풍요로우시고 풍족하시며, 자족하시는 분이므로 그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89. 알-무그니 (The Enricher): 풍요롭게 하시는 분

"그 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고 계신다. 삶은 시험의 현장이며 이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 전체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부유함이란 지식과 지혜, 신념과 신앙이다."

90. 알-마-니으 (The Preventer, Withholder): 예방하고 막으시는 분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여도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하여도 그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 분은 가장 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므로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제시하여 주신다."

91. 앗-다-르 (The Distressor, or The Creator of Evil): 고뇌하게 하시고 악을 창조하신 분

"그 분은 해로운 것과 악 까지도 모두 창조하셨다. 마치 독이 가끔은 약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그 분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각을 주셨으며 사상과 선택의 자유 역시 부여하셨다. 모든 것을 시험하신다. 비록 그 분께서 악 또한 창조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택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며 몫인 것이다."

92. 안-나-피으 (The Favourer):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 분은 모든 좋은 것과 보물들을 창조하시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93. 안-누-르 (The Light): 빛

"그 분은 모든 피조물에게 내려오는 빛이다. 그 빛은 모든 사물을 암흑으로부터 구별해내며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주신다."

신념과 신앙의 이 빛은 마치 마음에 내려앉은 태양과도 같은 것이다. 온갖 사악함과 좁은 자아는 그 안에서 발붙일 곳이 없으며, 이 빛은 올바른 길로 피조물들을 인도하신다."

94. 알-하-디 (The Guide): 인도하시는 분

"그 분은 선지자들과 성서, 성인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 인간을 인도하신다. 신앙은 인간의 본질이며 모든 영혼은 약속의 날 그 분을 대면하게 될 것이다."

95. 알-바디-으 (The Originator of Creation, The Incomparable): 천지를 창조하신 분, 비할 바 없는 분

"그 분은 모델이나 물질없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그 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무에서 창조되었다. 여기에 그 분께서 행하시는 창조의 신비로움과 놀라움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창조된 모든 것들은 제각기 그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와 모습, 특질을 가지고 있다."

96. 알-바-끼 (The Everlasting One):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시간은 오직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창조물의 변화만을 위해 존재한다. 그 분은 시간과 공간 모두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절대적인 분이다."

97. 알-와-리스 (The Ultimate Inheritor): 최후의, 가장 근원적으로 돌아갈 곳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떠난 후에 이 모든 것들은 그 분께로 돌아간다."

98. 알-라쉬-드 (The Guide to the Right Path):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 분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근원적인 선생님과도 같은 존재이다. 그 분은 그 분이 가르치시는 것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것들을 기반으로 행동하도록 이끌고 계시다.

인간은 그 분의 학생으로서 언제나 그 분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지각하여야 하며 지니고 있는 모든 사고력과 이성을 사용하여 그 자신을 교화시키고 발전 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인간은 그 물질적인 존재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99. 앓-쌩부-르 (The Most Patient One): 가장 인내하시는 분

"모든 것들 안에서 그 분은 완전 무결하시다. 그 분은 모든 것을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순간에, 그리고 적당한 방법으로 행하신다. 모든 것들은 그 과정에 맞게 진행되어야 하며 인내하는 인간은 그 육신과 자아가 원하는 일시적이고 물질적인 욕구만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모든 발전과 도약은 고통없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고통이란 그저 일시적인 육신의 고통일 뿐이다. 이슬람은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깨닫되 그것을 경시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는 영혼의 발전과 승화를 추구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인내하는 자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이슬람 및 한국 이슬람에 대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uslimkorea.net>
- <http://www.quran.or.kr>
- <http://go.to/islamkorea>
- <http://www.isuram.org/kkuran/index.html>
- <http://cafe.daum.net/islaminkorea>
- <http://cafe.daum.net/kmsa>
- <http://cafe.daum.net/BISA>
- <http://www.koreaislam.org>
- <http://www.islam.co.kr>

영어로 된 이슬람에 대한 홈페이지 주소:

- <http://islamicity.com>
- <http://www.islamworld.net>
- <http://www.soundvision.com>
- <http://www.talkislam.com>
- <http://www.hyahya.org>
- <http://www.islamway.net>
- <http://www.islam-guide.com>
- <http://www.uah.edu/msa/quran.html>
- <http://islamicbookstore.com>
- <http://www.halalco.com>
- <http://www.islamicvoice.com>
- <http://www.irf.net/irf/main.htm>

후세인 크르데미리(HUSEYIN KIRDEMIR)

터키 앙카라 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1994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에서 국어학을 전공하여,
문학석사(1988년)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같은 대학교 박사과정을 이수중이다.